

금주의 기도

점점 더 악화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 굳게 서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0월 20일 (토) 제 170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보수주의 사법 운동의 승리 그러나...

미 언론,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 인준 논란 배경과 의미, 향후 영향 분석 보도

미국 의회 상원에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한 지난 6일 오후 캐버노는 의사당 동쪽 길 건너편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선서를 했다(사진 참조).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에 왼손을 얹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나, 브렛 캐버노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숙히 맹세한다”고 했다. 두 딸도 지켜봤다. 캐버노는 고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상원에서 찬성 50, 반대 48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그는 1789년 연방대법원이 설립된 이후 114번째 대법관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캐버노 인준은 공화당의 빛나는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법관 지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과 인준까지 지난 2개월 동안, 미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까지도 진보와 보수로 팽팽하게 맞서는 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연방대법관

인준 역사상 2표차는 가장 적은 차이로 반대하는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번 캐버노 인준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캐버노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했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캐버노 인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번 인준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 다시 캐버노 대법관 관련 의혹들을 연방하원 법사위에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연방대법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Associate Justices)’ 8명과 ‘대법원장(Chief Justice)’ 1명으로 구성된다. 미 연방 헌법에는 대법관 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연방 의회가 이를 결정한다.

건국 초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몇 차례 변동을 거쳐 1869년 ‘연방 항소법관법(Circuit Judges Act)’에 따라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인 체제로 개편됐고,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미 연방 헌법은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먼저 청문회를 열어 후보를 검증하고, 여기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이 상원 전체회의의 표결에 올라간다. 상원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되면 현재 단순과 반수인 51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방 헌법에는 연방대법관이나 연방대법원장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때 전문성이나 개인적 정치적 친분, 정책 성향,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등 상징적 대표성을 고려한다.

미 연방대법관과 대법원장 임기는 연방 헌법에 따라 종신직이다. 연방대법관은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신분이



지난 6일 캐버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보장된다. 연방 헌법 3조는 연방 판사들이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유지하는 동안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 종신 임기제를 도입했다.

사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위는 이 ‘종신 임기제’ 영향이 크다. 연임을 해도 8년밖에 집권하지 못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연방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건국 후부터 지난 1970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 평균 재임기간은 15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평균 25년씩 근무한 뒤 퇴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곧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까지 포함해 대법관 9명 중 4명이 2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미국 역사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3면으로 계속〉

지구온도상승 1.5도 미만 유지해야 재앙 막는다!

BBC, UN IPCC 보고서 소개와 함께 1.5도 유지위한 5단계 방송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전 세계를 향해 또 한 차례 마지막 경고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았다(Summary for Policymakers of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approved by Governments). 그 골자는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하고 이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따라서, 1.5도를 유지하기 위한 5단계를 보도했다(Five things we have learned from the IPCC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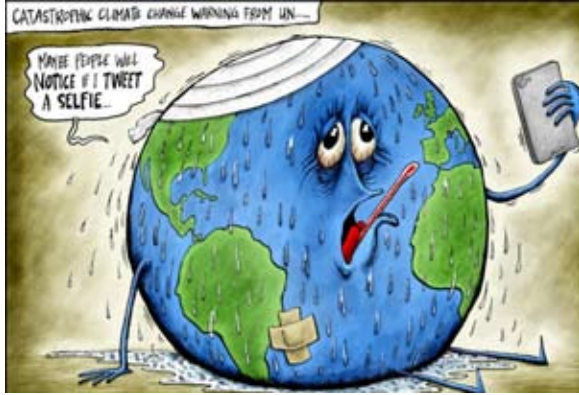
남은 시간 12년...전 세계 “함께 행동하기” 요구
에너지 체계, 땅 관리, 교통수단 등 변화 있어야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유지시키는 노력에 대한 동 보고서는 이제 지구 온도가 궤도를 벗어나 3도를 향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폭적이며 전례 없을 정도의 변화를 사회 모든 분야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비용 소요가 엄청났겠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3년에 걸친 연구와 과학자들



과 정부 관계자들이 1주일 동안 한국 인천에서 임시편한 끝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5도의 지구 온난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완성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16면

인/태/뷰
박기춘 목사, 이혜란 사모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성화 액자 / 기증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 530, 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HEAL OUR LAND 2018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회개 · 부흥 · 회복 · 선교

일시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8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우리의 오랜 기도 응답으로 미국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대 부흥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계선교와 세계질서 유지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11월 중간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드리시는 은총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강준민 목사, 고승희 목사, 고태형 목사, 권혁빈 목사, 김경진 목사, 김기동 목사, 김기섭 목사, 김지훈 목사, 김태형 목사, 김한요 목사, 노창수 목사, 민경엽 목사, 민승기 목사, 민종기 목사, 박성규 목사, 박용덕 목사, 박은성 목사, 백정우 목사, 신승훈 목사, 안동주 목사, 엄규서 목사, 윤대혁 목사, 이호우 목사, 정영희 목사, 지용덕 목사, 진유철 목사, 최홍주 목사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이 서 목사, 샘 신 목사, 안병권 목사

사무총장: 양경선 목사

문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양경선 목사 (213) 255-1725

주관: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남가주전지역교회협의회/목사회/여성목사회/장로협의회, O.C.평신도연합회, 미주성서화운동, CMF, 미스바기도운동, SOON Movement, HYM, Zion Mountain Foundation, JAMA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CHTV18.7, CTS기독교TV, CGNTV, GBC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기독교방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4

2014 Verizon Wireless Amphitheater Irvine

2015 & 2016 Anaheim Convention Center

2017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714) 446-6200 www.gracemi.com



시론

교회가 힘쓸 세 가지 사역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교회는 어떤 일을 힘써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힘쓰셨던 일을 하면 된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평생 시에 행했던 대표적인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다고 기록하였다(4:23,24;9:35).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에 힘쓰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수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만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마태복음에만 치유하신 사건이 14번이나 될 정도로 치유를 많이 하셨다면 그만큼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힘쓸 세 가지 사역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예수는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시하셨다. 예수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셨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고 환자들을 가르치셨다.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친 만큼 변화되기 때문이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도,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무릇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교인이라면 배우는 일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인이라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헬라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상대방이 체득할 때까지 가르치고, 열매와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라고 하였다. 여기에 신앙 계승의 4세대가 등장한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까지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열매와 증거다.

둘째로, 예수는 자신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한 열두 제자와 70인 전도대를 만들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때로는 식사하는 것조차 있을 정도로 예수는 전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다. 복음이란 말은 원래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이었다.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했다. 당시 최강의 페르시아 기병대를 아테네가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겼다.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 피데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의 승전보를 잡지도 쉬지 않고 아테네까지 뛰어가 그리스의 왕에게 알렸다. 그리고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거리가 42.195Km였다. 이것이 올림픽의 꽃이라 하는 마라톤의 유래다. 이렇게 기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한다(딤후4:1, 2). 교회는 전파하기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로, 예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예수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야이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셨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취지로 치유를 해야 하는데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심각한 어려움일 수 있다. 또한 이 사회의 구조적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는 22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상류층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사치와 허영에 물들어 있었고, 빈둥거리는 생활과 화려한 파티에 탐닉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26세 때 예수를 영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 노예무역을 근절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의 목표로 주셨음을 깨달았다. 당시 영국 경제의 주된 원동력이 노예무역이었고 국가 수입의 1/3 이상을 노예제에 의존했기에 그가 노예제와 싸우는 것은 사실상 영국인 전체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노예제가 폐지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각고의 노력으로 그의 의정생활 46년 만에, 그가 죽기 열흘 전에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로 인해 영국병이 치유되었고, 미국도 그 영향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현재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들이 기를 펴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교회는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 교회가 이 세 가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결혼 중매쟁이로 나섰다!

뉴스위크, “중국사회 출산율 저하...고령화 급속 진행” 보도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의 압박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짙게 가시게 만드는 게 또 있을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다. 국가가 나서서 결혼 하라고 법석을 떠는 것이다. 8월에 있는 중국 명절 칠석절(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하늘의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로 ‘정인절’이라고

도 불린다)은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다. 선남선녀가 서로 연인을 구하거나 부모의 감시 아래 교제하며 그날을 보내는 게 마땅하지만 거기 에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까지 끼어들었다(A Government’s Lonely Heart Club).

중국에선 이제 혼기가 찬 남녀에게 가정을 꾸리라고 잔소리하는 것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중점 정책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면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됐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이제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은



증한다(물론 요금도 더 비싸다). 지난 1월 차오는 “우리 플랫폼에서 1000명 이상이 출절 연휴 동안 고용 가능한 데이트 상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트 상대 대여 산업이 2022년이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텐진 출신인 자오웨이웨이(20)는 사교행사에 참석하기보다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또래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결혼하려고 데이트한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꺼

정부, 독신남녀 위한 대규모 집단 스피드데이팅 주선

‘한 자녀 정책’ 37년 만에 폐지 불구 자녀 출산 꺼려

60세 이상인 중국인의 수가 2050년이면 4억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인구보다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위축됐다. 2014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본토의 생산가능 인구가 9억1천5백8십만 명으로 전년대비 4백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경제적 우려는 젊은이의 결혼, 더 중요하게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중국은 생각한다.

특히 공산당 지도부는 남쪽진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임여남’과 ‘임여녀’의 중매에 적극 나선다. 30세 이상의 독신남성과 27세 이상의 독신여성을 중국 당국은 흔히 그렇게 부른다. 지난해 6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은 저장성에서 독신남녀 10만 명을 위한 집단 스피드데이팅(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성과 대화를 나눈 뒤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는 방식의 미팅) 행사를 주최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도 간쑤성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관영 언론은 주로 두려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탠다. 2014년 환구시보는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이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낀다며 ‘편향된 성비와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치

로 독신남성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그해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이 되면 24~40세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인민일보에 ‘혼기를 넘긴 독신남성이 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독신여성에게 ‘임여녀’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에서 부모가 독신인 자녀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영국 런던대학 SOAS 중국연구소의 류제위 부소장은 뉴스위크에 “중국에선 모두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기대”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당연시되는 관행이다. 자녀가 20대 말에도 독신이라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하이 런던공원에서는 매 주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결혼시장 이 선다. 수천 명의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그곳을 찾는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의 인적 사항(사진·나이·키·소득·학력·피·가훈·성

격 등)을 적어 게시판에 붙인다. 조건이 맞으면 양측 부모가 서로 만나본 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자녀의 만남을 주선한다.

정부까지 나서서 결혼을 밀어붙이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도시에선 집단으로 맞선을 보는 행사가 자주 열린다. 결혼을 목표로 하는 독신남녀 수천 명이 공원이나 스타디움에 모여 배우자감을 찾는다.

중국판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탄탄’처럼 2015년 차오텐텐이 만든 ‘Hire Me Plz’도 인기다. 독신자가 저녁 식사나 모임에 데려가기 위해 임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을 내면 어떤 행사든 곧바로 데려갈 수 있는 짝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 성매매는 안 된다. 중국에선 매춘이 불법이다.

춘절 등의 명절엔 사용자가 급

리는 젊은이가 더 많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이제 두 자녀까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가정을 꾸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중국 사회과학원은 자녀 1명을 16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7만1천6백44달러라고 추산했다. 중국(본토 기준)의 일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3,212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너무 큰 부담이다.

결혼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 수치는 여전히 우르스럼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조이혼율(당해 연도의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이 2006~2016년 1.46건에서 3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보수주의 사법 운동의 승리 그러나...

〈1면에서 계속〉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도 바로 연방 대법관을 이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 주에서는 공화당 부시 후보가 몇백 표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1만4천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나자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이 개표 결과가 뒤집히면, 민주당 고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수작업 재개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선 35일 만에 조지 W. 부시 후보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또한 지난 2015년 미국을 떠돌썩하게 했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포함해 낙태나 총기 소유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대부분 연방 대법원을 통해 결정이 날 정도여서 연방 대법관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부연하자면 연방대법원은 낙태, 사형제, 총기 소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어퍼미티브 액션),

동성 결혼,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활동 허용, 이민자 정책 등 미국 사회를 돌로 갈라놓는 정치·사회적 쟁점이 최종 심판대에 오르는 곳이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 이상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몇 걸음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한다. 대법관 인준을 놓고 벌어지는 격렬한 대립은 이 때문이다.

케버노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대법원은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4명으로 나뉘었다. 케버노 대법관 취임은 보수 대법관이 한 명 늘었다는 것 이상의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30여년 동안 진행돼온 보수주의자들의 ‘사법 반혁명’(대법원의 진보적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보수진영의 운동)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다.

뉴욕타임스의 연방대법원 담당 기자인 애덤 림택은 “케버노의 인준은 보수주의 사법 운동의 승리를 상징한다”며 “이 나라의 최고법원에서 확고부동한 다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레이건 시대에 시작된 수십년 프로젝트의 정점”이라고 평했다

(With Battle Over, Kavanaugh Quickly Gets to Work as a Supreme Court Justice).

올해 53세인 케버노 신임 대법관은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 출신이다. 그는 명문인 예일대학교 법률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들어가 일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케버노 지명자를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낙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대로 2006년이 돼서야 인준 받았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케버노 지명자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 언론은 케버노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의 마찰은 연방대법원이 강경 보수로 가기를 원하는 백악관과 공화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케버노의 성폭행 미수 논란은 과거와 달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은 물론 11월 중간선거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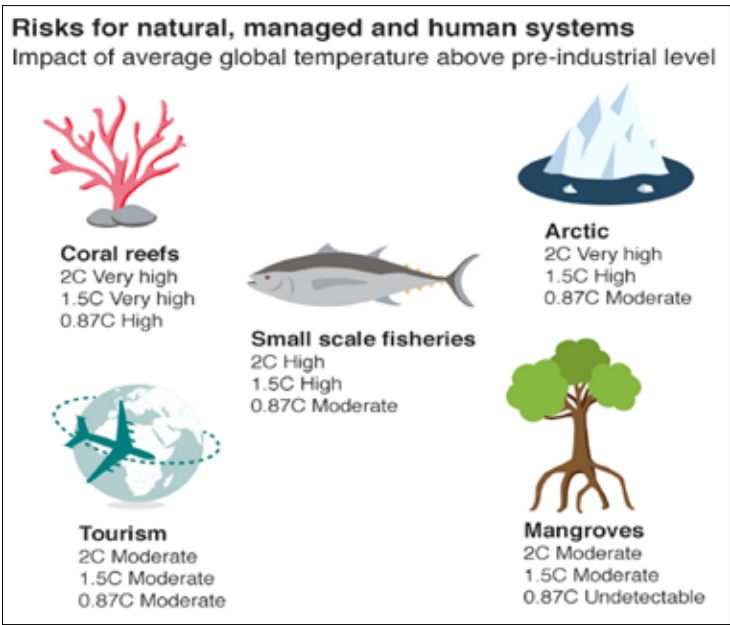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의혹이 ‘

미투’ 운동을 격화시켜, 중간선거에서 특히 도시 교외 지역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지명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케버노의 대법관 지명과 인준 청문회 과정은 양극화된 미국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내보였다. 그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여성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는 7%에 그쳤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금 미국은 내전 중”이라고까지 표현한다(The American Civil War, Part II: The nation is deeply divided, with each side seeing the other as “the enemy”). 양쪽이 상대방을 ‘반대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적’으로 여긴다는 애기다. 보수주의자들은 대법원을 장악하며 승리하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간극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티미터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 대단한 문제 같지 않게 들리겠지만 온도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유지하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를 1천만 명이나 줄일 수 있다.

바다의 수온과 산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쌀,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이 자라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보고서

는 이제 어려운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 전 세계 국가들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더 많

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그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하기”가 요구된다고, BBC는 말한다.

개인적으로 친환경 수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가 같은 이들이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낼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대기업을 압박할 때도 함께 행동하는 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다.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될 정치적 의지와 실천에 관한 부분은 결국, 전 세계 시민이 결정하고 뜻을 모아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돈(중)

돈 관리 원칙

평소 필자의 교회 재정관리 원칙은 목사가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 지출을 철저하게 보고는 받되, 간섭은 피했다. 정기적으로 감사는 실시하되, 관여하지는 않았다. 충신편회 35년간 단 한 건의 재정사고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실한 청지기들의 헌신 덕택이었다. 필자가 평소 지켜 온 목사의 돈 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자축하기

돈은 많을수록 좋다. 모자라면 불편하다.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가지고 누리는 것의 분량과 상관없이 자축의 비결을 터득하면 돈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다.

머리 돌 곳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 우리로선 만발치를 따르기도 힘들다. 고무풍선은 적당한 공기를 주입했을 때 필요가치를 인정받는다. 모자라면 쓸모가 없고 지나치면 터진다. 이러한 단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네지만 적정선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재벌의 붕괴, 고위관리들의 몰락가도 따져 보면 끝없는 욕망의 산물이다.

자축이란, 그날 하루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립된다. 자축이 없으면 연행이 거절어지고 기도줄이 잡히기 않는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보는 시각에 사치현상이 일어난다. 자축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평안으로 이어지고, 평안은 영혼과 육체를 풍요롭게 만든다.

2)공상필지 않음

필자의 학창 시절은 버겁고 각박했다. 고된 고학의 길을 걸어야 했고 배고프면 허리띠를 졸라야 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 시절 식권 한 장 값은 13원이었다. 필자는 매일 한 끼나 한 끼 반으로 식사를 조절해야 했다. 식권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학교 뒤편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술임을 씹기도 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강의실로

내려오곤 했다.

어느 날인가 “박종순이는 점심 시간마다 위커힐 호텔에 올라가 스테이크 먹고 온다더라”는 루머가 퍼졌다.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친구가 필자에게 “안양에 땅 3만 평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필자가 “아마도 3만 평은 더 될 거야”라고 했더니 이 임 저 임에서 박종순이는 부자집 막내다. 땅 부자다. 위커힐 호텔에서 양식 먹는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다. 없다고 징징대고 먹지 못한다고 공상떠는 것은 필자의 자존심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회 평생 필자는 그 자존심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지켰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자존심과 성직자로서의 자존심을 공상떠는 그 일로 일그러뜨리는 것은 꼴사나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때 “박 목사는 미국에 수백만 달러를 모아 두었을 것이다. 은행에 수십 억을 예치해 두었을 것이다”라고 입방아 찢는 풍수가 있었다. 개의 치 않고 내버려 두었다.

목사는 자기 자리를 찾아 앉고 서는 것이 쉽지 않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넘기고 지나쳐야 할 경우가 많다. 쌀독에 쌀 떨어졌다. 지갑에 돈 떨어졌다. 사는 게 힘들다며 공상편에서 연민의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체험이고 소신이다.

3)주고받고

필자의 경우 부흥회 요청 교회를 선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 요청은 수락하고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는 거절하는 일은 피했다. 도시와 농촌도 가리지 않았다. 부흥회 강사를 초빙하지 못하는 농어촌 교회는 직접 연락하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형편이 넉넉한 교회는 사례금을 받았고, 건축 중인 교회는 건축현금으로, 담임교역자 생활이 어려운 교회는 받은 사례금을 담임교역자에게 드렸고, 자녀교육이 버거운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으로 전했다. 필자의 경우 역시 쪼들린 생활이었지만 주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iamcspark@hanmail.net

피종진 목사 초청 10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1(월)~ 3(수)
7(주) 저녁
8(월) 오전

11(목)~12(금)
12(금) 철야
13(토) 오후
14(주)~17(수)
15(월)~16(화)

18(목) 낮, 저녁
19(금)~21(주)
21(주) 저녁

22(월) 오전

광주 제자교회(홍흥식 목사)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장소: Healing Center 영어토론회연구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MT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이사장 김성수 목사)
군포 성장교회(김인기 목사)
동서울노회 정기노회

장소: 서울 총현교회(당회장 노태진 목사)

곡성 나눔영성원(원장 김현식 장로, 이사장 박은임 목사)

서울 침탈교회(고은자 목사)

원주 중부교회(김미열 목사)

주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분당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KAICAM

제215차 해외성회(215th Overseas Assembly)

22(월)~24(수) 미국(U.S.A) 라스베이가스 늘푸른교회(노은철 목사)

26(금) 저녁 미국(U.S.A) LA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27(토)~28(주) 미국(U.S.A) 오펜지카운티 새영교회(김영찬 목사)

29(월)~31(수) 미국(U.S.A) LA 한미연합총회(총회장 김 [주]재임 목사)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America General Assembly(RPCA) 목회자세미나

(후원: 남가주한인목사회, 한인여성목사회)

☎ 010-8477-0191
☎(041)531-7216

☎ 010-997-5606

☎(031)668-0553

☎ 010-4440-2777

☎ 010-5277-7593

☎(02)558-8200

☎ 010-2646-2691

☎ 010-4664-8751

☎(033)744-2761

☎(031)780-9500

☎(702)628-4621

☎(714)446-6200

☎(562)833-5520

☎(213)219-1187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케버너 대법판사, 대법원내 채용에 새로운 기록 세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와 대법원 판사로 두 번째 지명한 브래트 케버너(Brett Kavanaugh)가 지난 몇 달 동안 부정당한 의심과 거짓증언들로 판명된 소송으로 인해 생지옥과 같은 과정들을 거친 후 드디어 지난 토요일인 10월 6일 새로운 대법원 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의 임명식은 케버너 판사에게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 협박, 정신적 고통을 함께 고스란히 당한 그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람들도 느낄 수 없는 교감이 오가는 자리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식 때, “케버너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공정성, 품위 및 정당한 절차라는 모든 개념을 위반합니다. 법적으로 남자는 여자든, 그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그는 무죄로 추정되어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케버너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누가 또는 어느 당원들이 케버너 판사 인준을 찬성/반대하였는가?

△민주당 소속 Jon Manchin 상원의원: 케버너 찬성

△나머지 민주당 48명: 100% 케버너 판사 인준 반대,

△공화당 소속 리사 멀로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 케버너 반대

△나머지 공화당원들 50명: 100% 찬성

현재 미국 상원에는 총 51명의 공화당원과 49명의 민주당원이 있는데, 각 당에서 한명씩 당과 다른 표를 행사하였지만 숫자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왔기에 50:48이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케버너가 미대법원 판사로 인준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케버너 판사는 왜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를 받고 있나?

케버너 판사의 전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미국 헌법을 선조들이 헌법을 적은 의미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판결한 전력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미 자체가 변질되고 있던 “결혼의 정의, 생명의 존엄성, 정부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신앙의 자유” 등등,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될 때부터 선조들이 생명 바쳐 지켜오던 성경적 가치관의 확고한 기준과, 미국을 지금까지 지켜오며 온 세계에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오던 가장 기본 되는 원리원칙들을 법정에서 지켜온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주의 기독교리더들과 단체들은 그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이미 미국의 헌법과 완전 거꾸로 가는 가치관으로 정당(Political Party)까지 바꾼 민주당 의원들(친동성애, 친이슬람, 반기독교정책 지지)에게는 이런 케버너 판사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절대로 미대법원 판사가 되게 해서는

인으로 기록되어있고 그녀가 앞서는 “인종평등, 여성우선, 약자보호” “MeToo” 운동 등등을 외치는 민주당 소속 진보주의자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언론과 미디어는 이런 내용들을 커버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낙인(labeling)들을 찍어 거짓 증언을 일삼기에 기독교인들이 각별히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케버너 판사가 자신의 새로운 보좌진을 구성하면서 성별 비율에 관한 기록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법

원보좌관과 여론들과 민주당이 끝까지 몰고 들어온 케버너의 성폭행 혐의들도 FBI 조사까지 했어도 결국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케버너가 여성을 차별하거나 그가 백인인 것만으로 마치 대법원 판사에 부적격한 것처럼 몰고 가려했던 민주당의 시도도 케버너 판사의 새로운 재판보좌관 임명을 통해 다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전 대법원 판사의 자리를 이어받은 케버너는 지난 일요일(14일)부터 조용히 그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깊이 뿌리박혀



분홍색 간판-“난 Planned Parenthood(PP)를 지지한다(PP=낙태 대기업시술소)”



맨왼쪽 간판: 케버너는 “백인우월주의”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첫날부터 미국 대법원 역사상 벌써부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케버너 판사!

케버너 판사는 임명을 받자 자신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law clerk)으로 흑인을 채용하고 새로운 보좌진을 다 여성으로 채용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첫번째 이유는 한 예로, 9명의 대법원판사 중 한명인 루트 깁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원 판사와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 루트 깁스버그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진보 성향이 매우 짙으며, 그녀가 임명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그녀가 채용한 100명의 재판연구관 중에서 흑인 재판연구관이 단 한 명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녀가 13년간 일했던 워싱턴DC 순회법원에서 그녀의 고용 기록도 보면 57명의 고용이 온전히 백

원에서 이루어진 채용 구성원의 패턴이었던 ‘저명한 법과 대학을 졸업한 백인 남자’에서 탈피하여 4명의 재판보좌관을 다 여성으로 뽑았습니다.

2017년도에 발행된 National Law Journal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의 재판보좌관들은 850펜트가 백인이었으면 그 중 2/3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향되었던 대법원의 채용 이력을 새로이 임명된 케버너 판사는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바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임명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민주당이 그를 “여성혐오자, 인종차별자, 백인우월주의” 등등 진보주의(Liberal)들이 언제나 보수파들에게 낙인 찍는 것이 무색하도록 일처리를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류 언론과 미디어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제대로 커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깨어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

있는 크리스천 정신을 뽑아버리고자 힘쓰는 사악한 큰 손(재정)들과 물려오는 영적 세계관 전쟁은 멈추지 않고 더 격렬하게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케버너 대법원 판사의 인준이 있자마자 케버너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자 어둠의 큰 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중간선거 때 크리스천들의 임무는 더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 미국회복의 영적 전쟁을 해줄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할 용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투표 자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Tvnex.org@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계명 제 9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기독교가 영적 전쟁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싸워야 할 악 사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뉴에이지 운동이 악한 사탄적인 사상과 운동이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시티에서 이희은

A: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과학, 점성술, 자연숭배, 영지주의, 동양의 신비주의들이 합쳐진 혼합종교 체제로서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구원관은 극기와 명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되어 브라만으로 환생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 이를 개발하면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찾는다면 뉴에이지는 그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만을 부추기며 인간은 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인본주의 웃 입은 사탄 운동

“빛의 소리”의 김형민이란 분이 과거 국민일보에 연재한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의 근본정신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아 놓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입니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나 중생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둘째, 뉴에이지 운동은 루시퍼에 대한 경배를 강조합니다. 빛의 소리의 김형민의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운동의 지도자이며 스코틀랜드 핀드혼 재단 뉴에이지 운동본부 제2대 대표였던 데이비드 스펜클러는 지난 78년 한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면 각자 루시퍼를 경배하고 루시퍼에의 임화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루시퍼란 사탄입니다.

셋째, 뉴에이지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세계 단일정부를 만들도록 길을 닦는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자들은 명상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어떤 종파자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짐승 숫자라고 못 박은 666을 성스러운 숫자라고 봅니다. 이들은 반만 그런 무지개와 모든 것을 본다는 피라미드의 눈, 꼬리를 문 뱀, 불교의 만자 유니콘(뿔이 이마에 달린)을 상징으로 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장래의 변영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해방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영화, 비디오 만화게임 등에 우리 자녀들이 심취해있는데 흥행에 크게 성공한 ET나 스타워즈, 사랑과 영혼 등은 다 뉴에이지 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에게 질문하는 것, 주문으로 영을 불러내는 초혼, 마술사, 마녀주문, 부적, 마법의 칼 등이 어린 세대의 정신세계를 마구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개 반성경적이며 악령적이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웃 입은 사탄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으로 봅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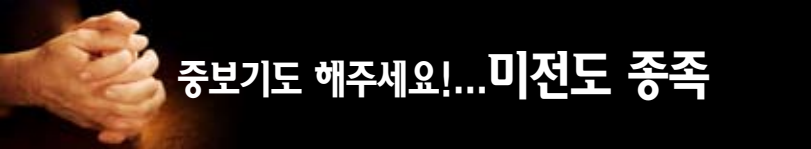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하누누(HANUNOO)



하누누족은 필리핀 본토인 루손(Luzon)섬, 바로 남서쪽에 있는 민도로(Mindoro)섬에 산다. 불랄라카오족(Bulalakao), 햄판간족(Hampangan), 망얀족(Mangyan)으로도 알려져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하누누족은 현대 문명과는 거의 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른 민족들과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종족들의 언어와는 달리 문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누누족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특이한 점은 하누누족은 글을 종이에 쓰지 않고 대나무에 쓴다는 것이다. 민도로섬의 해안지역은 넓은 평야지역인데, 대부분의 인구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섬의 안쪽은 거친 산들로 덮여있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지역에 산다. 한때 민도로섬은 말라리아의 전염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최근 몇 십 년 동안 필리핀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왔으며 개척자적인 생활양식을 이 섬에 소개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방탕했던 그 사람, 840만명 살린 크리스천 되다

술과 마약, 포르노와 도박에 빠져 살던 뉴욕의 전직 나이트클럽 프로모터가 극적인 체형 끝에 기독교적 신앙심을 되찾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로 변신했다.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 받던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자선단체를 이끌게 된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목마름(Thirst)’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스타 해리스(43)의 인생 역경을 소개했다.

해리스는 2006년 9월 비영리 단체 ‘채리티 워터(charity: water)’를 설립한 크리스천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채리티 워터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전 세계 6억6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물이나 정수시설을 제공해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리스의 인생은 방탕했다.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뒤 맨해튼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호화스런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차를 몰았다. 음탕한 일상이 반복됐다. 금기야 코카인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에 손을 댔다. 신앙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해리스는 그 기간 동안 종교를 멀리했다. 그는 당시의 삶에 대해 “이기적이고 타락했으며 끔찍했다”면서 “그 때의 난 내가 아는 최악의 인간”이라고 회상했다.

해리스는 2004년 8월 일을 그만두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신앙심 깊은 부친의 조언을 따랐다. 그리고 병원에서 무료 수술과 진료를 해주는 기독교 자선단체 ‘머시십(Mercy Ships)’ 활동에 동참했다. 서아프리카 연안을 돌며 머시십 활동을 하는 아나스타시스 호에 탄 그는 사진작가로 봉사하며 13개월 동안 6만장의 사진을 찍었다.

배낭의 열네 살 소년 알프레드는 오염된 물 때문에 입 속에 1.8kg짜리 종양을 달고 살았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소년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해리스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난 삶을 반성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대부분이 오염된 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한 해리스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아프리카 소년의 고통이 해리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신앙심을 다시 일깨운 것이다. 머시십 봉사에서 돌아온 해리스는 채리티 워터를 세웠다. 그는 색다른 기부 방식을 택했다. 사람들에게 죄책감 대신 즐거운 기부의 방법을 제시했다. 기부자의 금액과 이름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구글어스로 기부한 우물을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나이트클럽 프로모터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채리티 워터는 3년 만에 10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기업을 토했다.

해리스는 모금 과정에서 교회가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를 통해 지역 성도들을 상대로 ‘보세요,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며 채리티 워터가 하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채리티 워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 이후 12년 동안 전 세계 100만 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26개국에 2만9725개 프로젝트를 실행, 총 849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책을 통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과 친절함을 베푸는 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처럼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



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높이뛰기 선수, 하반신 마비 극복의 기적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이뛰기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천이었고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단한 신념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사나이, 그의 이름은 제이미 니에도(41)다.

니에도는 높이뛰기 미국 대표 선수로 2004년 그리스 아테네와 2012년 영국 런던 등 올림픽 무대에 두 차례 출전했다. 아테네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인 2.34미터를 뛰어 넘으며 올림픽 4위에 올랐다.

세계적인 선수였던 그에게 2016년 4월 불행이 찾아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아주사파시픽 대학교에서 백플립 도중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척수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순간 이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앞친 데 달친 격으로 사고 직전 보행을 해지한 상태였다. 치료비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였다.

“백플립을 하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져서 목과 척수 디스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가슴 아래로 마비가 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앰블런스를 기다리는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니에도는 주변 선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선수는 자신의 차에서 성경을 가져와 니에도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손도 성경에 올리고 주님을 불렀다.

수술을 마친 뒤 힘겨운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를 당했던 그에게 그다지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니에도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며 재활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2년간의 재활을 거친 끝에 니에도는 인상적으로 컴백했다. 목발에 의지하긴 했지만 온 몸을 스스로 움직였다. 아직 재활은 진행 중이다. 니에도는 반드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역경을 헤치고 나오는 걸 지켜보실 겁니다.”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지만 항상 주님께 돌아가 기도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전 인내하고(be patient), 신앙심을 유지하며(stay faithful), 계속 기도하고(keep praying)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서 기적처럼 벗어난 이후 니에도는 배우로 거듭났다. 기독교 전문 영상회사인 퓨어플레이의 ‘힐튼 헤드 아일랜드(Hilton Head Island)’에 출연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께 의지해 기도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노력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것이다.

퓨어플레이닷컴은 니에도의 믿을 수 없는 인생역정 등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일어서다니, 대단하다”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길!”이라고 응원했다.

미 중학교, 크리스마스콘서트 때 ‘예수’ ...

미국 버지니아주 한 중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다. 몇 년 동안 땅을 사용한 후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휴한(休閑)기를 갖는다. 최소 2년 정도 땅을 쉬게 한 이후 그 땅을 다시 사용한다. 농업 이외에도 하누누족은 가족을 길러 식량을 충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을 잡는 것은 축제 등의 특별한 때에 가끔 있는 일이다.

큰 잔치가 있으면,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노래를 주고받으며 구애를 한다. 한 남자가 젊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강강이, 기타, 코로 부는 피리, 하프 등의 악기로 반주를 한다. 고백을 받은 여자는 본인의 노래로 답을 한다. 결혼은 오직 양측 가족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남편은 아내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이는 남자가 상대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서 생기기 되는 아내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함이다.

신앙

하누누족은 정령숭배자, 즉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종족이다. 가장 중요한 정령 중 하나는 칼락(kalak)이라고 불리는 수호신들이다. 칼락의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누누족은 음식과 유리구슬을 바치며 제사를 지낸다.

또한 하누누족은 관습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면 칼락이 기뻐한다고 믿는다. 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관습을 엄히 적용하지 않으면 칼락이 라방(labang)이라고 하는 악령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방이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며 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누누족은 믿는다.

병을 퇴치하기 위해 하누누족은 발라난(balyanan)이라고 하는 사



때 ‘예수(JESUS)’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뉴스채널 NBC12는 최근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소재 로버어스 중학교가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데이비드 앨런은 “마치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 같다”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합창단을 이끄는 교사는 이메일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예수’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앨런은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하려면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다른 것들까지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기독교적 관습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종종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16년 텍사스주 패터슨 중학교에선 성경 구절이 적힌 장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패터슨 중학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데드라 새넌에게 성경 구절이 담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무실 문에 걸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벨 카운티 지방법원 잭 존스 판사가 ‘새넌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라는 말을 추가하라는 단서와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복원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나의 생명 드리니” 작곡가는 모차르트 아닌 뮐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의 작곡가는 볼프강 모차르트(1756-1791)가 아닌 뮐러(1767-1835)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교회음악아카데미 사무실에서 만난 김명영(74) 전 연세대 교수는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모차르트 곡으로 알려진 ‘미사 12번 G장조’(미사 G장조)의 첫 곡인 ‘키리에(자비를 구하는 기도)’ 멜로디가 찬송가 213장”이라면서 “2012년 옥스퍼드대 학술지는 뮐러가 1791년에서 1803년 사이에 미사 G장조를 작곡했다는 자료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미사 G장조 작곡가가 뮐러라면 이 곡의 멜로디를 딴 찬송가 213장의 작곡가도 당연히 뮐러로 바뀌어야 한다”며 “웨일즈를 제외하곤 전 세계 찬송가 213장의 작곡가가 모차르트로 돼 있다. 한국 찬송가를 비롯해 당연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교수는 작곡가 연구 등을 하다가 작곡가가 바뀌게 된 과정을 추적했다. 영국의 저명한 음악출판사 ‘노벨로’가 처음 출판을 잘못하면서 시작됐다. 1819년 노벨로는 ‘모차르트의 미사 12번 G장조(Mozart’s 12th Mass, in G, K.V.232)’ 악보집을 출판했고, 이후 100년 넘게 교회음악 악보집 중 베스트셀러로 꼽혔다.

미사 G장조는 6곡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곡 키리에를 비롯해 두 번째 글로리아(대영광송), 세 번째 크레도(신앙고백), 네 번째 상투스(거룩하시다), 다섯 번째 베네딕투스(복 있도다), 여섯 번째 아누스데이(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김 전 교수는 “대영광송이 그 유명한 합창곡 ‘영하롭도다’의 곡조”라고 설명했다.

노벨로판 출판 후 미사 G장조가 모차르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독일 음악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미사 12번 G장조 ‘대영광송’ 중 ‘성령과 함께’라는 부분이 푸가로 작곡됐는데 모차르트의 일상적 교회음악 작품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푸가는 하나의 주제가 각 성부에 장기적이며 규칙적인 모방·반복을 행하면서 이뤄지는 악곡 형식이다.



만(무당) 혹은 주술사를 부른다. 발라난은 바위에 사는 정령을 다스릴 수 있는데, 발라난은 이들 바위 정령을 보내서 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누누족은 가난 속에 살고 있고, 교육이나 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적인 삶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다. 하나 하누누족에게는 물리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크다. 대부분의 하누누족 사람들은 그들의 정령신앙에 묶여 살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다른 기독교 자료들과 더불어 하누누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 구약 전체 성경이 필요하다. 많은 기도과 전도가 소중한 하누누족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열쇠이다.

1862년 모차르트 연구가 뢰헬(1800-1877)은 모차르트의 전 작품을 연대순으로 목록을 만들어 편찬했다. 모차르트 작품 번호를 뢰헬 번호(K 또는 KV)로 표시했다. 뢰헬 사후에도 새로 발견되거나 연대가 바뀐 곡들을 수정해 지금까지 여덟 번의 개정판이 나왔다. 뢰헬은 처음부터 미사 G장조를 ‘K.Anh.232’로 분류했다. 모차르트의 작품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분류할 땐 ‘Anh.’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독일어로 부족이라는 단어 ‘Anhang’의 약자다. 1905년 뢰헬 개정판 제2판에선 미사 G장조를 모차르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작품번호를 ‘K.Anh.C1.04’로 수정했다. ‘Anh.C’는 모차르트의 작품이 아닌 작품들의 분류번호다.

2012년 영국 옥스퍼드대 도서관 카탈로그에서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791년부터 1803년 사이 뢰헬가 미사 G장조를 작곡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후 미사 G장조는 뮐러 작품으로 수정돼 출판되고 있지만, 찬송가 213장과 합창곡 ‘영하롭도다’는 여전히 모차르트 곡으로 알려져 있다.

뮐러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다. 인기있는 작곡가로 무대 작품을 비롯한 25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

미 중간선거 여성 예비후보 ‘역대 최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를 뽑는 경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여성이 당선됐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패배를 지켜봤던 여성들이 적극 참여한 것이 원인이라고 LA 타임스(LAT)가 10일 보도했다.

미국 여성정치센터(CAWP)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 주의회 의원 후보가 된 여성은 3379명이다. 2016년의 264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연방 상원의원 후보는 2012년 18명에서 22명, 하원의원 후보는 2016년 167명에서 235명으로 늘었다. 주지사 후보도 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 후보들의 수가 늘다보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여성 후보가 출마해 맞대결을 벌이는 선거구도 25곳이다.

두 정당 여성 후보의 경선 통과비율은 차이가 컸다. 쿡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에 나선 여성 후보 중 43%가 승리해 당 후보로 결정됐다. 반면 공화당 여성 후보 중에서는 13%만 경선을 통과했다.

여성 후보들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맞대결이 여성 정치지망생들의 관심을 크게 끈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기간에 여성 비하 발언을 남발했던 트럼프가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성들이 정치 참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LAT는 여성 정치지망생 후원단체 에밀리리스트에 등록한 여성 정치인 수를 분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후 몇 주간 1000명 이상의 여성이 공직 출마를 위해 사무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美·中 싸움에 주변국들 가세…新냉전 가속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외교·안보·군사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의 원색적인 비난전이가 열리는데 하면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구축함이 충돌 직전까지 대치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와 일본, 호주 등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그에 버금가는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미·중 싸움판에 주변 강국들도 가세하는 ‘신 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은 최근 더욱 거칠어졌지만 사실 20년여 전부터 부각된 이슈다. 1989년 미국과 소련 정상회담이 종식되어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소 냉전 체제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위협’인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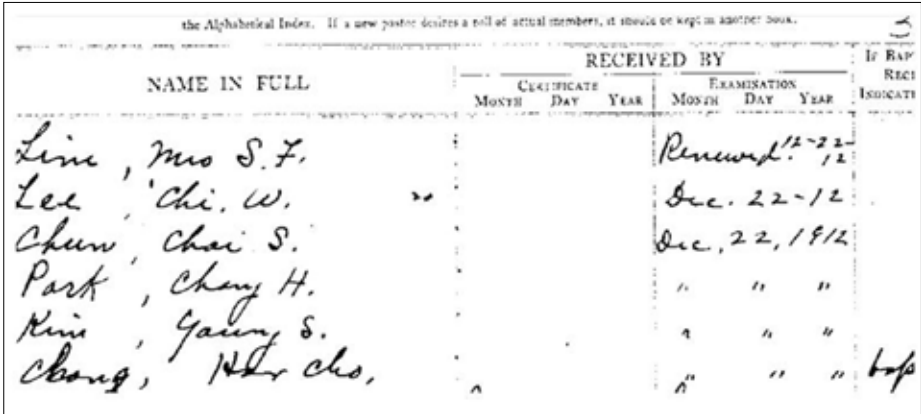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1. 이치완(1858-1936)

이지완은 1857년 9월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46세가 되던 1905년에 25세 된 아들과 함께 도망쳤다. 아들의 원래 이름은 이원갑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창기로 바꿨다. 도망하자 곧 남가주 리버사이드(하변)로 이주한 그는 3년 후인 1908년에 중가주 프레스코로 이주하였고, 이듬해 1909년에는 다시 하노비로 이주했고, 1년 후인 1910년에는 하변 인근 레드랜드로 이주하여 1,400달러의 주택을 매입하여 오래 살려고 했지만 2년 후인 1912년에 중가주 다뉴바로 이주한다. 이처럼 당시 한인 노동자들은 철새처럼 농장 일거리를 찾아서 오갔다.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쳐 다뉴바를 방문했다. 그는 한국 교인을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상항 교회 이대위 목사가 맥퀸 선교사를 모시고 내려갔고, 나성 교회 민찬호 목사는 '한



1912년 세례교인. 위에서 두 번째가 이치완.

1912년부터 다뉴바 제일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3년 사역

1917-18년 다뉴바 재 사역 때 교회당 건축

1924년 미 남감리교회 연합회 리더리 지방전도사로 임명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1912년 9월 다뉴바에 거주하던 한인 동포가 미국 북장로교회 산하아퀼 노회에 교회설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노회는 전 중국 선교사였던 존 H. 라플린 목사를 파송하여 다뉴바 한인장로교회를 설립하고 미국인 다뉴바 제일장로교회 P.E. 쉬어 목사를 담임목사로 그리고 이치완을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치완은 전해 12월 22일에 세례를 받고 전도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5년까지 약 3년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제외한 설교와 심방 등 모든 목회 활동을 관장했다.

1912년 10월 15일 교인들의 헌금으로 노스 0길 204번지의 가옥을 구매하여 그 해 12월 23일에 헌당식을 거행했으니 자조 정신이 강했다고 본다. 교인들이 650달러를 헌금했고, 미국인 다뉴바 제철장교 회가 약간을 기증하였다.

1912년 말 장한조의 부인, 조원주 부부, 임성택이 미명하여 교인이 되었고, 이치완, 전재수, 박창호, 김영선 그리고 장한조는 세례를 받았으며, 박병은, 강승천, 김춘식, 홍재행, 이원갑 부부, 오충국 부부는 학습을 받았다. 이날 라플린 목사가 예식을 주관했다.

개척 2년 후인 1914년 8월에 신성중학교 교장 조지 S. 맥퀸 선교사가 상항을 거

국인의 어머니' W.B. 스트리트 부인과 함께 다뉴바로 올라왔다. 고국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백이삼십 명의 동포가 모였고, 미 국민 다뉴바 제일장로교회 교인도 참석했다.

1914년 11월 30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오종국이 재무를 맡았고, 미국인 다뉴바 체일장로교회의 W.L. 린드리 부부와 본 교회 목사의 딸 플로라 쉬어가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했다. 그해 라퍼건 목사의 주례로 이살로메와 이질로스 등 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정국환, 소 군, 강원설 그리고 이운악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종기가 이명하여 교인이 되었다. 이로써 세례교인 22명, 유아세례교인 17명, 학습교인 3명이 되었다. 약 27명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고, 약 20명이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총지출은 65달러였고 내지 선교에 5달러, 건물 수리에 20달러, 자선에 15.50달러를 지급했다. 1915년에 마석영이 이명했고, 한시대, 한영대, 한영숙, 한성순, 한재생이 세례를 받았다.

1915년 4월 29일에 이치완이 신한민보에 아래의 ‘공익에 쓴 힘은 그 효험이 있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의 신앙의 일면을 엿보게 된다.

“대개 인도자는 인민을 지도하여 화를 피하고 복으로 나가게 하며 악을 버리고



다뉴바한인장로교회, 1912년

가 외연에 나와 생각하며 행하고자 하는 일은 다 동일한 목적이니 이를 행하고자 하면 부득불 인도자의 말을 잘 복종해야 될지니 우리 형제들은 이를 주의하여 전도의 큰 사업을 성취하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 사역

1915년에 홍치범 전도사가 부임하더니
한승곤 목사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가
1917년 가을에 나성으로 유학차 떠났다.
이에 이치완 전도사가 다시 섬기게 된다.
그는 한승곤 목사가 다시 부임하던 1918
년까지 약 1년간 사역한다. 그의 두 번째
사역에서 예배당 재건축이 가장 큰 사역
이었다.

예배당이 협소하여 건축한 지 5년 만인 1917년에 총 786.08달러로 재건축한다. 건축현금 508.70달러와 구 예배당 판매금 250달러를 합쳐서 부족액이 15.88달러였으니 한인들의 자립정신은 대단하다. 지출

다. 닥터 스러칠이 25달러, 닥터 라클린이 20달러, W.B. 스트윅과 그 부인이 15달러 등 17명이 총 약 100달러를 현금했다.

임금이 높았던 1918년에는 한인 노동자들이 복숭아와 포도 농장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다뉴바 교회의 교인수가 97명으로 증가하여 가주 한인 교회 중 가장 큰 대형(?)교회가 되었으니 이치완에게 목회가 재미있었으리라.

리틀리 한인감리교회

다뉴바 거주 6년 차인 1918년 가을에 이치완은 중가주 맨티카로 이주했다가 2년 후에 남쪽으로 135마일 떨어진 같은 주 리틀리에 정착했다. 1924년에 이치완은 미국 남감리교회 연찬회에서 리틀리 지방 전도사로 임명되고 전도인 증서를 받는다. 그는 1930년까지 6년간 전도사로서 한석원 목사과 동역했다.

1930년에 본 교회 한 목사가 '새해의 표어'로 '예수여 오소서'를 정하고 1월 1일부터 5일까지 저녁마다 신년기도회를 하였다. 4일 밤에 이치암은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 외에도 마추흥이 '믿음과 생활', 다뉴바교회의 이살은 목사가 '민족과 독립정신', 오창근이 '은혜와 감사', 본 교회 한석원 목사가 '새해의 표어, 예수여 오소서' 그리고 권종흠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그해 3월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 제1계삭회에서 이치완은 생명록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5월에 리들리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총회 참석차 도미한 한국대표 양주삼 목사 and 동부인의 환영식이 있었을 때 이치완은 답사를 하였다.

리들리 한인장로교회

1931년 5월 리들리 한인감리교회는 재정 곤란으로 미국 북장로교에 가입한다. 이살음이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이치완은 마영준과 함께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 이충기는 안수집사가 된다.

이치완은 교회만큼이나 애국 운동에 마음을 쏟았다. 1907년에 레드랜즈 공립협회 대의원, 1908년에 프레스노 연합공립관의 토론회장, 1909년에 하변 국민회 대의원, 1912년에 레드랜즈 국민회 회장, 1914년에 다뉴바 국민회 구제원, 1916년에 다뉴바 지방회 학무원, 1919년에 맨티카 국민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1930년에는 리틀리에 동지회가 조직될 때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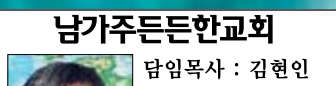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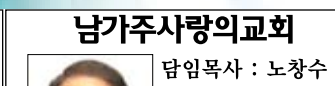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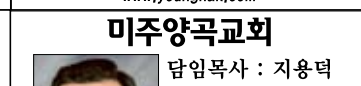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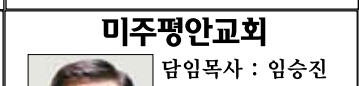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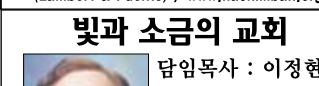
중가주 팔리어로 이주한 이치완이 30여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하여 1936년 11월 27일에 상항에서 아사마 마루 선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히 폐렴으로 상항 공립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1936년 12월 1일에 79세를 일기로 소천하였으니 고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런데 상항 사이프러스론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는데 묘비가 없다. 그의 자부 이열십이 4살 된 아들 에드워드를 남겨둔 채 해소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해였다.

damien.sohn@gmail.com

세기로뚝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 바 키 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rsc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오전 1:20 영양인 (장소: KDC, 침당도 001) 1부, 오전 7: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예배: 오전 1:20 영양인 (장소: KDC, 침당도 001) 1부, 오전 7:20 2부, 오전 11:2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을 돌아져 있는 우리의 주목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중함),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7:00 세바키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9-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양인예배: 오전 9: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7:00 (청년가도회: 오전 1:45) 세바키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55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영양인예배: 오전 9: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8:00 세 바 키 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세 바 키 도회: 오전 5: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이동부/종교개혁 주일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세 바 키 도회: 오전 5:15, 11:30 Tel: (323)641-0691 / yx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이동부/종교개혁 주일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7:30 세바키도회: 오후 8:00 세바키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745-9191(CH), 새(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기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30 주 일 3부 예 배: 저녁 7:30 세 바 키 도 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7:00 (청년가도회: 오전 1:45) 세 바 키 도 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 침례인도회: 오전 6:00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예배: 오후 7:00 (청년가도회: 오전 1:45) 세 바 키 도 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 침례인도회: 오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찬양: 오후 8:00 세 바 키 도회: 오전 5:30(월-토) 세 바 키 도회: 오전 5:30(화-토)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주님새언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세 바 키 도회: 오전 5:40(월-토) 성경영어예배: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of.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세 바 키 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리더십 코멘터리 (7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불확실성 시대에 결실을 맺는 영적 솔루션

급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리더 증후군 이야기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입장에서선 그들이 틈만 나면 회사 비용을 축내려는 것 같고, 연말이 되면 두둑한 보너스만을 원하는 것 같은 사람들로 생각되어진다. 그동안 성실히 일한 결과로 예상되는 매출 실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사를 확인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임원과 중간관리자들을 보면서 애태우는 가슴앓이가 바로 리더 증후군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의 복잡 미묘한 속마음이 사실 그대로 표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리더의 자격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증상은 CEO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에 속한 모든 최고 지도자들의 속마음에 수백에 없을 것이다. 실수에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부하 직원의 혁신과 창의성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항상 만물의 때를 기다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급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뿐이다. 삶이 힘들고 저 멀리서 거센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목표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가며 전진하는 기다림과 인내를 갖는 것이 영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히으로 공감한다. 위기의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리더십이다.

위대한 실패

‘인듀어런스’라는 책은 1999년 퍼블리셔 위클리 에 의해 그해를 빛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어니스트 새클턴의 위대한 실패’라는 부제가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여기서 인듀어런스는 1914년 남극대륙 횡단

새클턴의 이름을 다섯 번째로 올린다.
그는 비록 남극대륙 횡단이라는 도전
에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탐험역사에 길이 남을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새클턴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난 믿는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

리더가 가져야할 덕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인내(Endurance)다. 인내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 따라서 인내가 없는 리더는 리더로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이다. 인내심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어

려워도 끝까지 참는 바보'이다. 이는 무슨 일이든지 노력과 인내가 함께해야 빛을 본다는 의미이다.

요즘 흔히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힘이 된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다.

사실 리더십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간다.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며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실을 기다리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내이다. 하지만 리더가 삶의 현장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과정의 법칙이 필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다. 리더의 모든 문제는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인내를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리더에게 신뢰를 보낸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원동력

인내(Patience)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동 억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리

위기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인내하는 리더십
노력과 인내가 함께 해야 빛나... 열정과 분노도 필요

걸쳐 펼쳐진다.

선장이었던 새클턴의 임무는 남극 대륙 횡단에서 27명의 대원 모두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나 부비에 갇힌 남극해에서 선원 모두가 살아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황마저 최악이었고 구조를 기다리기는커녕 구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살인적인 추위와 그로 인한 선원들의 부상 그리고 식량의 부족은 상황을 더욱 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새클턴은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당시에는 무인도였던 엘리펀트 섬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5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아 있는 다른 대원들의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하여 떠난다. 그리고 조난 당한지 634일 만에 모든 대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한다. 구출 당시 한 대원은 이렇게 고백한다.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새 클턴이 리더라면 두렵지 않다.”

1999년 영국 BBC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하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임스 쿡, 닐 암스트롱, 마르코 폴로에 이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오직 결과와 실적만을 중요시한다. 그 결과와 실적을 사람이 단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리더는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내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참치 말고도 가르치고 참는 것은 손해라고 우리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약1:12).

탁월한 리더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크게 행동하는 리더는 인내 후에 행동한다. 인내할 것인가? 조금할 것인가? 리더는 항상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리더에게 신뢰를 보낸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 바보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일의 진전이 없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이고 둘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

너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인격적인 행
 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인내는 감정과
 행동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내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
 다.

물론 인내를 강조한다 해서 열정까지 억제하라는 말은 아니다. 또 분노를 절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도 아니다. 열정과 분노는 리더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이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기 원한다면 언제나 내인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철학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Preparation(준비), Perseverance(끈기), Patience(인내)를 꼽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인내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은 인내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캐나다서부장로교회)

가사 기도의 위력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것, 또는 그러한 마음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삶이 풍요롭게 된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있다. 감사의 인사,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 감사의 편지, 감사의 선물, 감사의 기쁨, 감사의 눈물 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는 감사의 기도이다. 만약 감사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사는 다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있다 할 찌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백괴센트의 감사가 아니다.

부모, 친구, 스승, 동료, 지도자, 사랑
하는 사람, 고마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
사를 해야 한다. 배운광덕한 사람이 되
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감사
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
님의 사랑, 용서, 자비, 긍휼이 내 모든
삶, 관계가운데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
다. 법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감사할 수밖
에 없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
다.

감사의 기도는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 그것이 감사 기도의 위력이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럴 때 물고기가 그를 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에게 제 2의 기회가 주어졌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 결과 사자 굴에서 건짐을 받고,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댔다. 감사 기도는 더 위대한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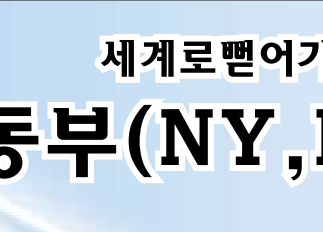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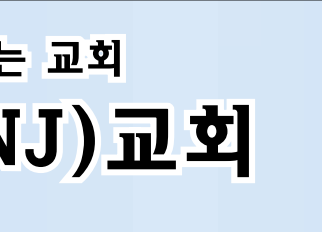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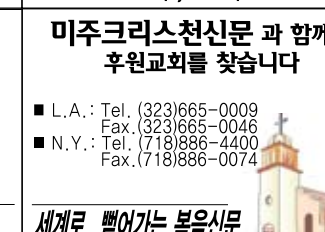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bible6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철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9717)-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gethsemane.org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제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nyc.org Tel. (516)837-9840, 98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어(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718)938-1882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빗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11:30분 주일 2부 오후 7:15분 주일학교 오후 1:15분 청년찬양예배 오후 8:3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회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89, bonhr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6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a.org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말세의 마지막 성도의 삶을 살아 가면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고후13:5)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법,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잘 믿는 것일까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칭찬받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책망보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칭찬받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욕함을 깨트린 여인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마26:13)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이 든 하인을 고침 받게 한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8:10)고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쩌든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어야 합니다.

2. 신나게 믿어야 합니다.
신이 들어와야 신이 납니다. 무당도 신이 들어와야 신나게 푸닥거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마11:16-17)고 하셨습니다.

신이 나지 않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욥2:28-2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부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은 곧 성령인데, 성령충만을 받아야 신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지만, 성령충만을 받고 안 받고는 각 개인의 의지적 결정으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성령충만을 받아야 신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3.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불이 꺼진 차는 정크되어 폐차되고 맙니다. 뜨겁게 믿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여 불을 받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용수철같이 뛰쳐 나가 목숨을 내

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직분도 없었고, 행사나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게 되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불 받은 자만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덜 구워진 생선은 비린내가 납니다. 이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 화끈하고 뜨겁게 예수를 한번 믿어봅시다.

4. 미치게 믿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제2의 예수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온전히 예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문, 혈통, 명예, 권세, 학문 등,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난 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에 완전히 미쳐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행26:24)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행26:25)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쳤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미칩니다. 온전히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칠 정도로 한번 예수를 믿어봅시다.

5.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당황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수1:6,7,9)고 거듭 당부하여 격려해주셨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간이 크다는 말입니다. 간이 크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은 간행이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모로지기 성도들은 간행이가 부은 자가 되어 강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강하게 믿어야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강하게 믿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게 믿어야 여러고성 같은 시험과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할 믿음의 근거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봅시다.

제3회 남가주신학대 연합설교페스티벌 연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 11월10일(토) 남가주새누리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가 주관하는 제 3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된다.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환영인사를 통해 “이번 3회를 맞이까지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교페스티벌을 통해 학교 간 연합과 친교의 장이 되기 바라며 학교를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 학생들을 통해 신학교육의 연장이 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페스티벌은 한국어 설교를 원칙으로 하며 15분 분량으로 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현재 ATS, ABHE, TRACS 등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준된 학교들이며 인수 받지 않은 학생들이다.

설교페스티벌 본문은 구약성경(에스겔 37:15-22, 이사야 60:1-3)과 신약성경(에베소서 2:12-22, 누가복음 23:26-29)이며 설교자는 4개 본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15분 분량으로 설교하며 주제는 ‘한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 차세대를 향한 계획’이다.

행사는 예배, 설교페스티벌, 평가 및 발표 친교순서로 진행되며, 설교 우수자에게는 △대상 2000달러 △설교상 1500달러 △주해상 1500달러 △커뮤니케이션상 1000달러 △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3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격려상 200달러 등이 각각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참가 학교는 △플러신 학교 △CST(클레이몬트신학대학교) △AEU(미성대학교) △MTSA(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PTSA(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IRUS(국제개혁대학교) △EU(에반겔리안복음대학교) △WWMU(월드미션대학교)이다.

하지만 더 많은 학교들의 참석을 위해 22일(월)까지 최종 참가신청을 받는다.

김창환 박사(플러신학교 코리아 센터 원장)는 “플러신학교의 경우 M.Div 과정은 영어권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에 대한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한국어 설교가 원칙이지만 영어설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향후 페스티벌을 영어설교부를 별도로 마련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은 “설교페스티벌은 11월 10일에 열리지만 이를 위해 각 학교별로 설교페스티벌을 갖게 된다”며 “학교별로 치러지는 설교페스티벌은 예산전 성격으로 열리게 되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말씀에 대한 사도함을 더하게 할 것이고 각 학교별로 선정된 설교자의 설교내용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다듬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중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더 크게 가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류종길 총장은 “참가학교 중에는 부족해 보이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다”며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명설교자를 뽑는 대회가 아닌 배움의 현장인 만큼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10월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자유대한민국 이상국가 재흥리더십 세팅’ 강의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10월 정기모임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회장 김희창 박사는 13일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자유대한민국 이상국가 재흥 리더십 세팅’을 주제로 10월에 있는 한국의 ‘국군창설, 한국개국, 한글창제’를 생각하며 국가적으로 재흥되어야 할 자유 대한인의 사명감을 갖고 “미주 한인선교여성합창단”, “남가주목사장로중창단”, “열린 울동단” 등이 협력해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회를 가졌다.

본회 회장인 김희창 박사(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는 “북한문화권에서 한국문화 안에 있는 3대 리더십 적용(3 Great Leadership Applying of Korean Culture in a Multicultural Setting)”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1부 예배는 해군출신 최정학 부회장의 인도로, 육군출신 살롬센터

소장 이자락 장로의 기도, 백소피 아 총무의 성경봉독, 설교는 서승원 목사가 ‘플라톤과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상국가론을 설명하면서 지금이 조국을 위해 기도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2부는 육군출신 차기학 부회장 사회로 헌금기도에 해군제독출신 인 원태여 장로, 측도는 해병출신 최훈일 목사가 하고, 애국가 제창 후에 남가주목사장로중창단 단장인 염규서 목사가 친교식사기도한 후, 식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 LA 영생장로교회에서 모임하며 예배와 주제별 특강을 하고 국가 조국 군인들을 위go 보국기도를 하고 있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밴쿠버성산교회
오영석 목사 소천



밴쿠버성산교회 담임 오영석 목사가 지난 12일 새벽 한국에서 소천했다. 오영석 목사는 중국 선교를 위해 캐나다를 출발해 한국에 잠시 머물던 중 과사로 소천해 성도들과 친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 오영석 목사의 빈소는 중앙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예배는 16일이며 유골은 캐나다로 옮겨 하관할 예정이다.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와 밴쿠버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캐나다 장례 일정은 천국환송예배 26일(금) 저녁 7시 밴쿠버 성산교회, 하관 예배는 27일(토) 오전 10시 Forest Lawn Cemetery에서 있게 된다. 유가족은 부인 하은정 사모와 장남 오석찬(자부 오주영), 차남 오인찬, 장녀 오주애.

캐나다 장례일정에 관한 문의는 정윤달 목사(604-441-2407), 이경원 목사(604-999-3130)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살롯장로교회 가을 야외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달 30일 새 장소(Frank Liske Park)에서 가을 야외예배를 드렸다.

나성균 목사는 ‘인생의 겨울을 예비하는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러한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이끌어나가 인생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승리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 중국인 Dr. Mao 부부가 참석해 아코디언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 마오 부부는 전유니버시티 학생들로

매주 수요일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날 영적 시간을 가져 중국인 전도동역자로 환영받았다.

이날 여전도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점심을 즐기고 친교와 보물찾기 등 노소동락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매 야외예배 때마다 증정하는 새가족 쌀 한 가마는 김용이 장로와 최경자 권사 가정에서 돌아갔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굿프렌즈교회 창립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성소속 굿프렌즈교회 설립감사예배

담임 양홍규 목사, 교회 3대 비전 발표

굿프렌즈교회(Good Friends Evangelical Church, 담임 양홍규 목사 8856 Walker St, Cypress, CA)가 14일 오후 5시 8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설립감사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드렸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총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 예배에서 양홍규 목사의 사회와 김규진 장로(지방회

장로부회장)의 기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동문들의 특별찬송, 지방회장인 오병의 목사(남가주벤엘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 강정운 목사(올리브브라이프교회)의 특송에 이어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봉헌기도로 마쳤다.

이어서 드린 2부 창립예식 및 위임식에는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연

약교회)의 사회와 지방회장의 창립서약과 창립선언, 위임자 소개, 위임서약 및 공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권면과 축사, 양홍규 목사의 답사 및 인사,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내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설교에 나선 오병의 목사(남가주벤엘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굿프렌즈교회를 담임하는 양홍규 목사는 예성 총회신학교와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M.Div) 및 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한길생명교회 부목사, 캘리포니아 백석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주일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에 드리며, 교회의 3대 비전은 ①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교회 ②다민족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선교하는 교회 ③민은 이들을 제자화하여 사역하는 교회이다.

▲문의: (714)852-8485
<기사제공: 굿프렌즈교회>

개국 40주년 KCBS, 특별대성회



맨 왼쪽에 최은종 목사가 감사패를 들고있다.

시카고한인기독교 방송(KCBS, 국장 김순철 목사, 이사장 백송학 장로)이 개국 40주년

을 맞아 지난 9월 28일부터 사흘간 김춘근 자마대표를 강사로 레익뷰연약교회(담임 강민수 목사)에서 특별대성회를 가졌다.

성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본 방송국 국장으로 6년간 사역한 최은종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은종 목사는 사역기간 동안 사육마련과 방송발전을 이룬 공로로 패를 받았다.

한편 KCBS는 ‘시카고한인기독교 방송 40년사’를 출판해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기사제공: KCBS>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사역자 청빙

캐나다 토론토빌라벨비아장로교회(담임 김치길 목사)가 동역할 목사(강도사)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행정, 청년부로 전임 또는 파트타임. 자격요건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또는 개혁신교단 소속으로 정규 신학대학원(M. Div) 이상 졸업자, 캐나다 합법체류자(가능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신앙간증 및 목회 소명과 경험 등 포함), 목사안수증명서(또는 강도사 인허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M. Div), 현재 소속 교단 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설교문 포함) 1편, 추천서 2부(목회자, 평신도 각 1인). 서류는 등기우편(8 Codeco Court, North York, ON M3A 1A2 CANADA)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11월 5일. ▲이메일: chikillkim@gmail.com

뉴욕 모자이크교회 장학생 선발

뉴욕 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한인학생, 목회자 혹은 선교사 자녀, 대학교 혹은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자격은 학과목 평점 2.5 이상, 모집인원은 10명(각 1000달러씩).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주요 등을 통한 부모의 목회/선교사역 서류, 사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신앙 고백적 장래포부에 대한 진술서(영어 또는 한글). 장학금 신청서는 온라인(www.nymosaicchurch.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이나정 장학부장(nlee11050@gmail.com)에게 보내면 된다. 접수마감은 10월 28일(주) 오후 4시. 수여식은 2017년 11월 11일(주) 오후 5시 예배 시에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917)488-0912 이나정 권사

플타임 사역자 청빙

플로리다 탬파에 위치한 탬파한인침례교회에서 플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담당 사역은 교육부로 자격은 △남침례교단 신학교에서 M.Div 졸업 또는 재학 중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비자 등의 합법적 체류신분 △구원의 확신과 전교 소망을 가진 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 △함께 오래 사역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필요서류는 이력서, 추천서 2통(전, 현 담임목회자), 자기소개서(구원, 소명, 장점, 단점 포함), 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사진. 서류마감일은 10월 31일로 우편(6020 N church ave, Tampa, FL 33614)과 이메일(wisdompc@outlook.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wisdompc@outlook.com

이스라엘 신학세미나

이스라엘 신학세미나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의 제목으로 10월 30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택 목사)에서 개최된다. 바르고 건강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성경해석과 어떻게 목회와 선교에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내용으로 강의한다. 강사는 에라즈 쵸레프 총장(Israel College of the Bible)과 권혁승 교수(서울신대 부총장). 등록비는 목회자 20달러, 신학생 10달러.

▲문의: (718) 321-7800

제 3기 필링 굿 클럽

패밀리치(원정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3기 필링 굿 클럽이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등록비는 100달러(교재 포함).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이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201)242-4422

이영훈 목사 초청 일일 축복성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 일일 축복성회가 10월 31일(수) 저녁 8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9-0166, 886-2323

‘침과 영성’ 세미나

달라스 지역 목회자사모(여성사역자) ‘침과 영성’ 세미나가 10월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개최된다. 강사는 이상목 목사(펜실베이니아 Korean Presby. Church of Erie 담임, Zoe Ministries USA 대표)로 장소는 Gateway Hotel(8102 LBJ Freeway, Dallas). 등록비는 무료다. 특별초대 교회예배 설교는 명치호 목사(달라스 영락교회)가 한다. 이상목 목사는 펜실베이니아

▲문의: (214)770-9912 전영미 간사

2018 월드밀알찬양대축제

2018 월드밀알찬양대축제가 11월 4일(주) 오후 7시30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아넬넷 15주년을 후원하는 행사로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이 주최한다. 소프라노 이경, CTS아메리카콰이어, 이삭 목사, 한인 동산교회와 뉴욕초대교회 찬양단, 소프라노 신동숙, 테너 김경순, 바이올린 김원기 등이 출연한다. 무료이며 티켓은 공연장 입구에서 좌석표를 받아야 한다.

▲문의: (718)460-5108

비블리컬신학교 한인동문회 목회자 연장교육

비블리컬신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임동열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연장교육이 11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한무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 221 Schraalenburg Rd, Closter)에서 열린다. ▲문의: (201)214-9992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 모집

뉴저지 잉글우드 구세군에서 자선냄비 무료, 유료 봉사자를 모집한다. 교회나 단체에서 1-2시간씩 팀을 짜서 하루를 해도 좋고, 개인이 몇 시간을 해도 된다.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24까지, 장소는 북부 뉴저지 한인마트, 미국마트. ▲문의: (201)600-4288 최사라

제 1회 왕의 귀환 미국 동부 세미나

제 1회 왕의 귀환 미국 동부 세미나가 11월 2일(금) 오후 8시(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유대인의 회심), 3일(토) 오전 10시(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 오후 1시(청교도의 소망과 유대인의 회심), 오후 3시(유대인을 향한 교회 개척과 선교) 뉴저지 시온성 교회(10 McDermott Place, Bergenfield)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울대, 고든콘웰신학교 졸업, 서울대학교회 전 담임 목사, ACTS 및 총신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박흥수 목사와 김주연 왕의 귀환 이스라엘 선교사. ▲문의: (201)580-7632 조슈아박

뉴욕교협 제44회 정기총회 사전등록 연기

10월 18일(목) 오후 5시까지...22일 총회 뉴욕장로교회서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제 44회 정기 총회 총대들의 사전등록이 10월 18일(목) 오후 5시까지로 연기됐다. 교협은 회비

납부는 정기총회 당일에 해도 된다고 밝혔다.

교협 회원들은 10월 22일(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사전 등록한



퀸즈장로교회 바자회에서 교인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대 앞에 놓인 안내판에는 본 교회가 지향하는 다민족선교를 나타내듯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쓰여 있다.

퀸즈장로교회 연례 가을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가을 바자회가 지난 6일 본 교회 지하전교실과 파킹랏에서 열렸다. 이번 바자회는 건축바자회로 동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민족 회중들을 위한 교회당 건축을 후원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바자품목은 예년과 동일하게 각종 음식류와 과일, 의류, 생활품 잡화류, 그림, 화분류 등이었다.

동 교회는 바자회 시작과 마침을 경건회로 드렸으며 바자회가 무르

익을 즈음에는 지하전교실에서 김성국 담임목사의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기 연주팀도 가세했다. 또 라비에서는 담임목사와 티타임을 갖는 코너도 마련됐다.

한편 파킹랏에서는 러시아어권 회중들의 엔터테인먼트도 열려 바자회 겸 전교인 교제의 시간이 됐다.

〈유원정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부흥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치유’ 주제, 강사 김의식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부흥집회

필라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목사를 초청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치유’라는 주제로 설립 24주년을 기념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인 김의식 목사는 한양대 공대 1학년 시절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과 가족치료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이후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거쳐 2000년 화곡동교회에 부임했다.

부임 후에는 치유 목회에 집중하며 주일 강단에서 웃음과 눈물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는교회를 출석교인 4천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총 3일간 김의식 목사는 ‘상한 마음의 치유’(엡4:31-32), ‘어디서 떨어졌는가’(계2:1-7), ‘행복한 가정의 비결’(엡5:22-6:4), ‘초대교회로 돌아가라’(행2:37-47), ‘만물의 마

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벧전4:7-11)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김의식 목사는 다섯 차례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말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며, 우리 자신이 치유돼야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에는 필라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로 “종말론적 목회: 치유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참석한 목회자들이 먼저 치유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필라안디옥교회는 교회설립기념 부흥성회를 시작으로 10월 10일부터 12일에는 제 4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가, 14일에는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가, 20일(토)에는 김창욱 교수 초청 ‘밀알의 밤’ 행사가, 그리고 21일 다니엘특별새벽기도회가 25일(목)부터 11월 17일(토)까지 10월 한달간 열린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맷처치, 김진우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맷처치(METCHURCH, 구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주요일인 10월 14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취임 감사예배는 인도 정인구 목사(헌팅톤UMC), 기도 김영훈 목사(뉴욕베델교회), 환영사 이길주 권사(목회협조위원장), 봉헌송 맷처치 다음세대, 설교 김정호 목사(후리성제일교회), 찬양 시운성가대, 축하와 권면, 취임인사 김진우 목사, 축도 조영준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축 하와 권면은 박창완 장로(한울림교회), 조영준 목사(전 정동제일교회)가 했다.

김진우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



총대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회비와 함께 본인증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총대는 목사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한 교회에서 2명이 투표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일교회 제직 중인 전도사 이상 목회자에게만 사유서 첨부과 함께 위임이 가능하며, 등록된 평신도 대표 대신 다른 평신도가 참석할 경우 사유서를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번 44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선출된다.

회장 후보로 현 부회장인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 나사렛), 부회장으로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네교회 담임, KMC)가 등록해 단독후보가 됐으며, 평신도부회장은 현 이사장 김주열 장로(목양장로교회, KPCA)가 자동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총회는 부회장에 단독후보가 나섬으로 예년과 같은 선거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총회 당일 투표를 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김영철 목사(7년차)와 김기호 목사(4년차)가 각각 등록했다. 제 44회 정기총회 10월 22일(월) 오전 10시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30주년 감사음악회에서 NY4Cs가 연주하고 있다.

더 풍성한 열매 맺는 30년 되길...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30주년 감사음악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가 3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저녁 5시 천구교회에서 감사음악회를 열었다.

230여명 참석한 음악회는 환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담임) 사회로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가 축사했으며, 그레이스 맨 뉴욕연방하원의원이 축사와 함께 상장을 수여했다. 론 김 시의원은 이날 셋째 딸 출산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연방하원이 수여하는 상장은 한인동산장로교회 이봉삼 목사, 뉴욕성결교회 이상호 안수집사, 그리고 각 교회 고등부 학생으로 대상으로 선착순 8명을 선정, 수여했다.

이날 음악회는 NY4Cs(NY Christian Contemporary Choir)팀

과 소나타 다 끼에자의 다양하고 풍성한 연주가 있었다.

음악회는 빈상석 목사(천구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청소년센터 김준현 사무총장은 “지난 30년 동안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 30년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10월 19일(금)과 20일(토)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택 목사) 체육관에서 열린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Fearless”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 강사는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 유스 사역자인 리사송 전도사다.

〈정라: 유원정 기자〉



제 3차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특송하고 있다.

제3차 전인치유 리더교육 6명 수료

기독교국제금주학교 & 뉴욕나눔의집 공동사역

제 3차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이 지난 3일 오전 11시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 대표 김도형 목사와 뉴욕나눔의집(GMAA) 대표 박성원 목사 공동사

역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포코노 깊은 산속 리트릿센터에서 알코올과 흡연 중독으로 고생하는 나눔 가족 6명이 4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집중강의를 통해 전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리더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교육을 통하여 4주 동안 금주와 금연을 했고 그 이후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으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인격변화 성품변화의 삶으로 중독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다.

이번 3차 수료식은 박성원 목사의 사회로 나눔의집 이사 최재복 장로의 기도와 김도형 목사의 설교 및 권면 후 수료증 수여(수료생: 존김, 이종수, 민경준, 성영호, 유성주, 김국현)가 있었다.

수료생 특송에 이어 예사랑교회 순환권 목사의 격려사, 황경일 목사의 축사, 박성원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김기태 목사의 식사기도 후 오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정라: 유원정 기자〉

“명성교회 문제, 30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에 달렸다”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 보도 ‘PD수첩’ 에 법적 대응 검토”

서울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위한 예상연대(예장연대)는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관련 결의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상연대는 “‘은퇴한’ 목회자 논란을 일으킨 헌법에 대한 이전 총회의 해석을 거부해 우리 교단의 목회자 대물림 금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을 총대들이 거부함으로써 헌법 교단법으로도 ‘은퇴하는’ 혹은 ‘은퇴한’ 문구와 상관없이 목회자 대물림 금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총회는 재판국일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이전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103회가 새 재판국이 재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예

장연대는 평가했다. 김하나 목사를 인정하지 않은 노회원들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면직과 출교 등이 정당하다고 한 총회 규칙부 해석 역시 거부됨으로써 노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예장연대 관계자는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를 통해 교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한국 교회사에서 기억될 만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은 건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라며 “지난해 가을 노회에서 명성교회 측 지지로 승계되지 못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연대는 명성세습 철폐를 위한 목회자 및 일반인의 온·오프라인 서명 1만1507명분을 총회에 전달했다.

명성교회는 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을 방송한 MBC 'PD수첩'을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명성교회 부자간 목회 대물림이 비자금 800억원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정보당 박모 장로의 죽음으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선교후원금 유용 의혹, 교인들을 동원한 외화 밀반출 혐의 등도 제기했다.

명성교회는 “800억원의 적립 재정 전액이 교회 명의로 통장으로 관리됐다”고 반박했다. 명성교회는 당회 명의로 성명에서 “현재 300여 억원이 남아있는데 은퇴목회자 수 양관 건립 및 운영, 미자립 1000교회 동역 지원사업 등 미래선교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공시지가 16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이 확인됐다는 대목에 대해선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임에도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과 단순 흑백논리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출된 직원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대의제도’,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결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집단지도체제’, 장로교회는 헌법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입헌주의’ 등이 그 원리다.

임 교수는 “교회 세습은 한국 장로교회가 공교회로서 이어 온 웨스트민스터 정치원리를 훼손하고 교단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며 “산업화시대 한국 기독교에 확산된 개교회 중심주의와 대형교회의 재정적 힘이 공교회의 질서를 훼손시켜 왔다”고 말했다.

노치준 광주양림교회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은 낙산산 인사, 유산 상속, 지위의 세습 등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맞닿아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 분노와 좌절감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명성교회를 몇 개의 교회로 분립해 그중 하나의 교회를 김하나 목사가 맡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대형교회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세습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학교 3인 3색'에서는 지역을 대표해 부흥하는 교회를 선정, 부흥방안에 대해 나눴다.

이 외에도 '주일학교 반목회' 이 노베이션 협동학습(원진하),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장애영), '교회학교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윤은성), '성품훈계법,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의 미래를 여는 비결'(이영숙), '교회학교, 기본 위에 부흥을 더하라'(신경민)로 준비된 다섯 개의 선택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다.

부스에도 50여 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주제에 맞게 성서 물품 부스를 개설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사바트 도마, 제사장 축복, 스파라디 토라, 기파, 하누카 촛대 외 30여개의 물품을 진열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1962년 안상홍이 창설한 종교단체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서 “1988년, 1999년, 2012년쯤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신도들이 과도한 종교활동과 현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불화가 발생했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종교의 기능이 가정의 행복, 사회 안정,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교회는 그걸 무시하고 이 땅의 가족을 마귀로 몰아 천륜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가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명성교회 문제 내달 13일 이전 다시 논의”

총회재판국 첫 모임 갖고 ‘명성 재심’ 관련일정 논의

서울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문제를 다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재판국이 15일 첫 모임을 갖고 재심 관련 일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제103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은 세습 인정 판결의 책임을 물어 기존 재판국 전원의 교체를 결정했다. 강흥구 새 재판국장(서울 샘물교회 목사)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국 전원의 의견을 담아 차분히(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첫 재판국 모임을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명성 사건은 다음 달 13일 정례회의 이전에 따로 날짜를 잡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오늘은 분과별 논의 주제를 정하고 법의 잣대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지난달 세습 금지를 명확히 한 총회 총대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재

판국의 경우 1년 임기 가운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속도전보다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통합목회자연대 주최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가 열렸다. 제102회 총회 재판국원이었던 조건호 소망교회 장로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있다”며 “총회의 결단을 재판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7일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를 규정한 총회 헌법 권징편 124조의 ‘재판국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며 “국원들이 총회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에서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희국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1922년 총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정치원리를 되짚었다. 투표표

“남성 간 성행위 따른 에이즈 확산은 사실”

한가모 논평 발표, 한겨레 해명기사 반박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모임(한가모)은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의 폐해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확산되는 에이즈의 문제점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가모는 논평에서 한겨레신문이 사용한 3단 연결망 기법보다 중요한 게 가짜뉴스로 규정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동성에 비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 규탄”

동반연, 민주당사 앞 항의 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겨레신문 가짜뉴스피해자모임은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한 민주당 대표가 규제의사를 밝히고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최

이 단체는 “한겨레신문은 3단계 연결망 등의 분석 방법의 논쟁을 떠나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배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 프로그램을 돌렸던지 무슨 기법을 사용하였던지간에 각 개인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25명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동성에 비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 규탄”

동반연, 민주당사 앞 항의 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겨레신문 가짜뉴스피해자모임은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한 민주당 대표가 규제의사를 밝히고 민주당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섰다”면서 “이처럼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차단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석 이슬람선교훈련원장도 “

기독교 미디어와 NGO가 보는 평화와 통일

“세상과 미래를 품다” 국민미션포럼 3부 교계 단체 역할 토론

국민미션포럼에서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내 서울에서 열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계 내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11일 오후 진행된 국민미션포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기독교 NGO들이 어떻게 북음으로 평화와 통일 이슈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용래 국민일보 대가자는 ‘기독교

미디어, 세상을 품다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가자는 “국민일보는 기독교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디어 기업이지만 정체성을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복음(Good news)과 뉴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도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현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통일선교 사역을 소개했다.

지목했어야 한다”면서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가모는 한겨레신문이 과도한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모든 의견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낙인찍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한가모는 이러한 행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과격 이슬람의 폐해는 개인과 가정, 교회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슬람 비판을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인 양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국민의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동성애를 강력 반대하는 한국기독교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는 2001년부터 17년째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 NGO들도 선교 사역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했다. 신대용 통일한국세움재단 이사장은 ‘통일한국세움재단의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통일 과정에서 북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짚으며 과거의 대북협력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주한 기아대책 대북사업총괄 본부장은 현재 북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나무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새롭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는 점 등을 비취볼 때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 이를 옹호하는 축제를 반대한다’는 위대본 사무총장의 주장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옹호주장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들의 의견표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입장보호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적시했다.

또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법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표현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 등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퀴어행사 반대,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대구퀴어조직위가 위대본 사무총장 상대 제기 고소 무혐의 결정

대구퀴어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퀴어대책본부(위대본)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없어 위대본 사무총장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위대본 사무총장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중구청 앞에서 ‘서울 대구 퀴어 음란 동성애 축제 거사반대’·‘동성로 음란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이다’ ‘동성 간 성행위=에이즈 창궐→가족붕괴→치료비 세금폭탄→국가붕괴’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한 바 있다.

또한 대구 동성로 1인 시위를 준비해 180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대구시민 7만9000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21만명 이상의 동참이 이끌어 났다.

이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퀴어행사 반대 움직임이 고조되자 대구퀴

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에이즈 폭증의 원흉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서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퀴어문화축제가 지향하는 가치인 동성애에 대해 비판, 축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란한 방법과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그 개개의 구성원에 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표현으로 인해 곧바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판단하고 21만명 이상이 위대본 주장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있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구절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눅22:19)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찬예식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기발을 쫓고 하산하던 중 베이스캠프에 들렀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샤모니에서 정상정복을 기념하는 축하파티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영웅심에 취해 긴장의 끈을 늦추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에 감긴 구명로프가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감긴 로프를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안내원은 무모한 행위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로프 없이 하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등산가는 교만과 방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아무 일이 없지 않았는가. 내려가는 길은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등산가

는 방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뎈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절벽으로 추락합니다. 기도도 인생과 교회의 구명로프입니다. 그것을 집어던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 수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chungkitaek@yahoo.com

mission 선교의 창 (11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한류(韓流 Korean Wave) 문화를 타는 세계 선교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죄 성을 지닌 인간은 더 많은 소유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군이나 해군이 공격을 한다. 즉, 폭격기나 함포사격을 통해 견고한 진을 부수게 된다. 이렇게 상대 진영을 축발로 만들어 놓을 때, 보병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세상 전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현대 선교에 있어서는 입체적 사역 전략이 요구된다. 함포 사격이나 미사일처럼 밖에서 가공한 힘으로 적진을 휘잡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문화선교이다.

오늘날 영화, 드라마, 가요, 라디오, TV, 사이버 영상을 통한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입체적 사역이 없이 창을 든 병사들만으로 결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문화(Culture)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Contents)를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창의적(Creativity)으로 개발해야 된다. 우리 한민족 교회는 이제 문화선교 영역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

1. 김구 선생의 염원

1940년 3월부터 1947년 3월 3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던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을 염원했다. 그가 쓴 백범일지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

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2. 한류의 실태

이 한류(韓流, Korean Wave)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류라는 용어는 중화권에서 1990년대 후

K-Pop 이외에도 대장금 같은 드라마, 영화, 국악, 의상, 태권도, 음식까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스마트폰, TV 등의 비뚤한 전자기기, 자동차, 성형수술 등 수많은 것들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3. 한류 문화의 발생 요인

현대사에서 한류가 아시아와 중남미를 넘어 서구세계 이슬람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결코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입체적 공격이 필요하다.

문화선교는 지상군이 할 수 없는 가공할 힘을 지니고 있다.

한류 문화가 세계에 뻗어 나가듯 선교적 한류도 이제 기지개를 켜야 한다.

반 H.O.T 신드롬이 일어나고, 한국의 아이돌 댄스 그룹과 한국 드라마가 중화권에서 청소년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지금의 2010년대를 기준으로 10~20대의 젊은 층에서 전 세계적인 한류의 유행과 폭발적인 영향력의 증가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2000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요즈음 가장 뜨거운 한류의 대명사는 방탄 소년단(BTS)들이다. 이들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boy)그룹이다. 이들의 노래는 10대와 20대 청춘들의 생각, 삶과 사랑, 꿈을 주요 주제로 하여 부르고 있다고 한다. 금년 들어 저들은 빌보드200에서 두 번째 1위를 했으며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 저들은 미국의 주요 TV에 소개가 되었고 유엔 연설을 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2년 7월 15일에는 음반으로 세계를 코믹하게 뒤집어 놓은 PSY(박재상)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은 대한민국의 가수인 싸이의 노래로, 이 노래는 유튜브 현재 조회 수가 32억이다.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

한류의 탄생원인은 지정학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 한반도는 대륙의 동양 문화와 대양의 서양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위 동서 문화를 모두 융합시켜 한반도라는 토지 위에서 제3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또한 이 한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는 패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로는 대륙에 아래로는 대양에 막혀 있다. 대륙과 대양의 진출이 쉽지 않은 고립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륙과 대양의 관문에 있는 한반도는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실제로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이 세력들로부터 약 1,000년에 걸쳐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아왔다. 이 속에서 한민족은 순한 고난을 겪으며 고유한 민족성이 형성되었다. 이 아픔은 한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 한은 감성을 발전시켰다. 결국 이 감성이 문화로 표출된 것이다.

4. 한류와 선교적 접촉

현대 선교의 가장 큰 난제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설정이다. 이는 일방적 만남이며 이것이 발전되면 인격적 만남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영적만남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접촉점을 주는 방안으로 한류가 하나의 선교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류가 주는 최고의 선교 도구이다.

한국 전통문화 소개는 선교사로 하여금 현지인과 좋은 접촉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선교현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문화 사역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왕래하며 단기 선교 형식으로 협력사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전 세계 한민교회는 영상매체와 문화의 파괴력을 생각하여 이 분야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가요나 드라마 등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는 이곳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된 내용들을 작품들을 만드는 작업이다. 복음의 내용을 현대의 구미에 맞게 포장하는 것이다. 때로는 의미를 담은 간접표현이 직접표현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맺음 말

한민족은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며 자산이다. 그 무형문화가 21세기 들어서 한류라는 유행문화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께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더욱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 문화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화평을 조성하고 어떤 담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인 세계선교도 문화사역에 눈을 떠야 한다. 사람을 파송하여 사역을 이루는 단선적인 방식을 벗어나 한류라는 대중성의 파도를 타고 가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한민교회는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한류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 계승 발전되도록 전략적 시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복음을 담은 한류,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한류, 복음과 함께 가는 한류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

jsong007@hanmail.net

브런슨 목사 2년만에 풀려나...해빙기 맞는 美·터키 트럼프, 백악관 불러 회견...에르도안에 감사 표시도

터키에서 억류 생활을 하던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이 2년 만에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기자회견을 여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업적 띄우기에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면서도 한동안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미국과 터키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집무실로 브런슨 목사를 초대해 “이 나라를 빛내준 데 대해 축하한다”면서 “당신의 믿음과 힘 덕분에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석방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브런슨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자신의 석방에 힘써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 브런슨 목사는 한쪽 무릎을 꿇고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를 짚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월적인 지혜를 내려 달라”면서 “그를 꺾어내리고 비방하는 적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이 장면은 TV방송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브런슨 목사는 재미 이슬람 학자 팻홀라흐 켈렌을 지지하는 터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실패한 직후인 2016년 10월 터키 당국에 구금됐다. 터키 측은 브런슨 목사가 켈렌 추종세력과 쿠르트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런슨 목사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터키산 철강 관세를 2배 올리는 등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직후 리라와 가치



가 2배 폭등하는 등 경제난을 겪던 터키는 백기를 들었다. 터키 법원은 지난 12일 브런슨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3년 1개월15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브런슨 목사가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 석방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호재로 보고 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북음주의 기독교인들을 결집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브런슨 목사의 부인 노란에게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참모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속삭이듯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목사의 석방이 자기 공로라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그는 회견 뒤 트위터에 “35년 동안 터키에서 감옥생활을 할 뻔했던 브런슨 목사가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고 올렸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터키가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두고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양국 관리들이 브런슨 목사 석방과 경제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다는 NBC방송 보도가 법원 판결 직전 나오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브런슨 목사 석방과 귀국을 두고 터키와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인질을 두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국가가 결혼 중매쟁이로 나섰다!

《2면에서 계속》

2016년 이혼한 부부는 420만 쌍이었다(전년대비 8.3% 증가).

홍콩의 사회학자인 샌디 토신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그런 추세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여성이 갈수록 불만족스러운 결혼을 참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남편

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들은 결혼생활이 힘들면 참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철석절전풍이 생길 수 있다. 과거엔 철석절이 되면 중국의 젊은 여성이 종이로 만든 제물을 태워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혼인증명서를 태우며 정부의 기대를 켜터미로 만들지 모른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펴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많으셨지요? 건강하며 편안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을 두 주간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죽마고우 목사의 소개로 양산의 한 장로님께서 김홍근 선교사의 이빨 9개를 임플란트 해주셨습니다. 11년간 양 어금니쪽으로 이빨 9개가 없는 채로, 앞니로만 살아왔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살전1:3)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헌금의 미션을,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사역과 기도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행은, 사연이 많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해지도록 기도해주시지요.

고아원의 마약하는 '선디'를 가르침/공원에 마약한 청년들께 음식과 복을 전함/시리아 청년이 발목에 전자 추적기를 달고 '살라쉬' 공영주택가에 거주/안나가 정신착란으로 입원함.

'안나'에게 병문안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옆 침대의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겠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2. 두 번째 행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특히 이틀간 예배당에서 캠프를 하고, 수영장에도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훗날 교회 추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며,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캠프 아침 체조와 기도, 만들기 시간, 수영장에서 즐거운 추억 쌓아갑니다. 피터르 전도사님, 임레 & 일디코 전도사님 부부, 로베르트, 원선미, 최하은 선생 위해 기도해주시지요.

3. 세 번째 행은 '거리의 교회'와 '쇼 빌라 고샤고(소금과빛) 개혁교회'의 예배와 급식, 집시슬럼가 사역! '남부여 거리교회'는 화요일 예배와 급식, 이발사역, 옷과 신발 등도 모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허타르 거리교회' 월요일은 급식 밴의

파킹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후, 급식차량을 공원과 역으로 이동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약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온 주변국가의 집시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어서, 당분간 월요사역은 장소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회쉬 슬럼가'에는 아직 남아있는 집시들이 있어서, 인권문제로 정부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쓰레기장이 되고, 마약이 더 심하며, 어린이들이 거절과 위협에 처해 있어 안타깝습니다.

'모니카'가 10번째 아이를 낳았고 10월말에 유아세례를 베풀기 위해 준비(성경공부) 중입니다.

4. '요셉아틸라 고아원'에 새로 온 십대들이 많은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주세요. 요즘 선디는 '마약치료모임'에 나가고 있고,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토요영어학교'에서는 원 선생님이 태블릿 2개를 기증해주셔서, 그동안 가장 성실했던 '멜린다

(8학년)'가 받아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 가정도 자녀가 9명인데, 한 아버지에 어머니가 둘인데, 그 두 명이 친자매입니다. 이것은 집시의 한 관습으로 너무 가난하거나 한 남자에게 두 딸을 맡겼던 옛 풍습으로 이제는 많이 계몽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58:12).

감사드리며,
May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홍근&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0)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정보시스템과 운용과학에서의 성경적 원리

A. 정보시스템

컴퓨터에 기초를 둔 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정보 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다. 의사 결정자는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정보(Strategic information)를 필요로 한다.

전술정보(Tactical information)는 조직의 전략을 이행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하위 계획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운영정보(Operational information)는 특정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원래 전체 조직 수준에서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의

의 좌절을 느끼거나 복수를 위하여 행동하는 몇몇 사람이 저지르며,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공모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근로자는 이와 같은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청지기 원리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과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업무상의 불만 때문에 조직에 복수하려고 마음먹지 않을 것이다.

D. 사생활 침해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공적, 사적 부문에 존재한다. 세무서, 신용카드회사, 은행, 기업들

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정부에 접촉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점차 기계화되고 컴퓨터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개체성, 유일성 및 가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컴퓨터를 대하는 것이 성가신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실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F. 기밀 탐지, 지적 소유권 침해, 컴퓨터가 초래하는 파괴행위

기밀탐지는 본질적으로 조직 차원의 범죄이며, 지적 소유권 침해와 파괴행위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해적판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대하는 것 성가시지만 인간 실체를 위협하지는 않아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자에 따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고안되었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은 대체로 낮은 수준 범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매우 특수한 시스템이다.

전문가시스템(ES: Expert System)은 매우 소규모의 의사 결정 영역에 전문가의 의사 결정과정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B. 운용과학

운용과학은 최고 경영자를 위한 문제 해결의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각종 의사 결정 문제에 대한 수학적, 통계적 모형을 구축하며, 그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대안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한다. 이 때의 운용과학은 전형적으로 컴퓨터 계산 처리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운용과학과 정보시스템 사이에는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C. 컴퓨터 범죄(Computer Crime)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과 전산망의 출현은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범죄(Computer Crime) 활동이 만연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컴퓨터 범죄는 흔

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양만 보아도 남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엄격하게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사생활 침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감시 위원회, 정부의 법령, 그리고 전문가와 기업의 윤리강령 등이 올바르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정보의 남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나 기업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뿐이다.

E.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컴퓨터에 의한 정보 사회가 낳은 예기치 못했던 결과는 바로 인간 생활의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이다. 기업과 의사소통이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업 소유의 컴퓨터로 공공요금과 청구서를 받고 개인 수표를 발행한다. 오늘날 은행 업무는 완전 전산화 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는 자동차의 결함을 진단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말해 준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개인으로서가 아닌 소셜 번호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IRS에 eFile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윤리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컴퓨터의 파괴행위(Computer Sabotage)이다. 이것을 바이러스 혹은 Worm(벌레)라고 불리는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복제되면서 모든 컴퓨터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와 파괴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는 타인 원리와 완전 원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보상도 없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분명 이웃의 컴퓨터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가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사회는 정상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잡고 있을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판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판촉상인 US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Address :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 TEL : 718-762-1200 / 2000 ◆ E-mail : bookskorea@gmail.com ◆ Kakaotalk : moonsyang

Food in Bible(9)

포도주 (Wine) (상)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인간 역사에서 물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음료로 포도주, 와인을 꼽는다.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포도는 이란으로부터 와서 남부와 서부로 퍼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북부의 Zagros 산악지대에서는 BC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와인찌꺼기를 담은 진흙 용기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고대 이집트인의 그림에는 포도의 수확과 와인 제조 장면이 그려져 있다.

포도를 따서 그릇에 넣어두기만 하거나 고인 물에 포도알이 떨어지지만 하면 자연히 발효하여 쉽게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인지 와인은 예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인류의 기호품이었음에 틀림없었던 것 같다.

성경에 나타난 포도주 제조에 대한 표현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포도주 제조에 대한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 있다.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많은 작업의 노동과 정성이 필요함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 흥미롭

다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5:38),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것이기에 저장 보관되어졌다(“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눅 5:39).

성경에서의 포도주의 사용과 의미

포도주는 구약, 신약시대를 거쳐 교회의 중요한 음식물의 하나로 취급된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나 다른 제물과 함께 전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었고(“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쓸 것이며”, 레23:13,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민15:5, 7, 10), 유헤

성경엔 포도주 제조에 관한 표현 많아...최후만찬 때 사용
인류위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의 상징으로

다(“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땅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5:2).

맺힌 포도는 손으로 따서 광주리에 담아 운반하였고(“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갈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렘6:9) 그것을 술틀에 담아 술틀을 밟았으며(“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욥24:11), 이때는 흔히 노동가가 불려졌다고 한다(“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렘25:30).

술틀을 밟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이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의 웃이 포도즙 때문에 얼룩이 졌다고 한다(“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웃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사63:1-3).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졌으며(“새 포도주는 새 부

식사에 중요한 식품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신약시대에는 포도주를 치유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눅 10:34, “이제부터는 물만 가지사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딤후5:23).

예수님 자신도 기적을 처음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가 있다(“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따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2:7-8).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었다(“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26:27-29).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들고 사례하신 후 포도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포도주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맺는 새롭고 영원한 약속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예배 때 포도주를 함께 마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전을 건축하러 하오니(왕상5:1-5)

솔로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형통한 복과 온 세상 왕들이 부러울 정도의 지혜와 총명이 넘쳤던 때(즉위 4년째) 솔로몬의 부친 다윗왕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두로왕 히람이 친선사절단을 보내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건축준비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왕으로

부터 성전건축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건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왕상5:1-5)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번이나 여호와와 이름으로 위하여 전을 건축하러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6절). 성전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성도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성전건축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왕상5:3-5)

또한 성전건축은 교회가 평안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건축을 열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왕 때부터 많이 준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3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모든 대적을 파하고 재앙이 없는 평강을 누리려는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전건축은 모든 성도들

이 마음이 하나가 돼 평강 중에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돼도 같은 마음으로 평가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평강 중에 성전건축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목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왕상5:6-10)

계속해서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람과 다윗왕과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것을 기뻐해 친선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전건축과 백향목과 귀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다윗왕을 사랑했습니다. 히람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성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 태평성치를 이루니 기뻐 친선사절단을 보냈더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힘을 다하고자 하는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전건축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학1:8).

금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왕상5:11-12)

계속해서 성전건축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건축은 설계에서 시공, 그리고 마지막 봉헌하는 순간까지 반드시 정확한 계약을 체결해 건축해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조를 맺었다”고 하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과 같은 뜻인데 짐승을 놓고 그 가운데를 자르고 서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그 짐승과 같이 찢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왕상5:13-18)

계속해서 성전건축은 약 삼분의 일의 힘을 동원해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분의 일만 건축만 하고 다른 것을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신교도 하고 생업에 치중하고 가정도 돌보면서 함께 성전건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노동의 효율성과 이스라엘의 경제가 잘 유지되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주 크고 값진 돌(4-5m)을 기초석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역사적인 성전기공식을 끝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기초가 돼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an.org Tel. (82)2-490-7000, Fax. (82)2-562-5770 서울시 중랑구 금란동 340-1 (113-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월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목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은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판구 수서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02)389-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신갈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로 17길 29(삼일동) www.shinch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로 17길 29(삼일동) www.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50-1 www.anam.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제네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구 봉림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KAPC총회 임원단, 한국 교단총회 친선사절단 방문

합동 등 5개 교단...고신, 합동 선교회와 MOU 체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임원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한국에서 개최된 5개 교단 총회에 친선사절단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총회 임원단은 6명으로 총회장, 서기, 회계, 총무, 교단발전위원장, 세계선교회장이 동행했다. 일행은 11일 새벽 인천에 도착해 경기도 기흥에서 열린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에 참관했다. 이 교단은 몇년전 분립돼 나간 150여 교회가 다시 복귀한 교단이다. 12일에는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에 참석해 환대를 받았다. 13일에는 천안에서 열린 103회 고신총회(총회장 김성복 목사)에 참석했으며, 역사박물관을 관람하면서 한국교회가 겪어온 지난날 수난의 역사들을 돌아봤다. 17일에는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103회 개혁신교단(총회장 박만수 목사) 총회에 참관했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송월교회에서 열린 합신 총회(총회장 홍동

필 목사)에 참관했다. 합신총회는 총대원들이 목은 호텔 현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연일 회무에 몰두하는 총대들을 배려하는 여유도 보였다. KAPC 총회 임원단은 이번 각 교단들을 방문하면서 교단 산하 세계선교회(WMS, 회장 조문휘 목사)가 고신과 합동 선교회와 MOU를 체결해 앞으로 공동으로 세계선교를 지향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MOU는 지난 회기(총회장 유재일 목사) 때 이미 약속된 것

로 이번 방문기간에 이뤄졌다. 총회장 김재열牧사는 “교류하는 한국 교단들이 KAPC 친선사절단들을 극진하게 맞아주셨다”며, “작년에 참여했던 임원들이 ‘금년도 KAPC의 위상이 더욱 전진된 모습이었다’고 말씀해 감사했다”고 전했다. KAPC는 11월 행사로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 연석 수련회(11월 5-8일, 멕시코 칸쿤) △NARPARC(북미주개혁신교단협의회, 대표 박성일 목사) 정기 연차모임 주관(11월 13-15일,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를 남겨놓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 5개 교단 총회를 방문한 KAPC 임원 사절단. 왼쪽부터 서기 권혁천 목사, 총회장 김재열 목사, 총무 김영기 목사, 세계선교위원장 허상희 목사, 교단발전상임위원장 황은영 목사, 회계 김원도 장로.

인/터/뷰

‘전도와 새가족 세미나’ 강사,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목자교회)

‘LA전도와 새가족 세미나’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며 전도의 필요성과 함께 새가족 사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세미나를 마친 두 분 강사와 함께 짧은 인터뷰를 통해 목자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을 들어 보았다.

목자교회는 설립 34주년을 맞고 있다. 이 교회에 박기준 목사가 부임한 것은 2001년. 처음 교회에 부임해보니 교세 90여명 정도인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기존 성도들의 기득권 행사와 교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목사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박 목사는 이 교회에 오기 전

고 생각하고 전도 특공대를 모집했더니 30여명 정도가 모였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전도 특공대가 조직되고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가 직접 인솔했다. 담임목사가 직접 전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혜란 사모는 “전도는 아주 중요해요. 담

었어요. 전도의 어려움을 경험한 우리 전도 대원들은 전도용품들을 수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지요. 수제 비누, 수제 방향제 등 아이디어를 모아 정성을 들여 만든 전도 용품을 가지고 관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관계전도는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계속 연계되도록 이어가면서 교회는 안 와도 집으로 가

육반 5주, 성숙반 12주, 제자반 21주 등 성도들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마련했다고 한다. 새가족으로 등록되면 철저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새가족의 눈높이에서 최대한의 사랑과 섬김을 다해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예배와 기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새가족 사역이라며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는 전도와 기도, 양육이 하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자교회의 또 하나의 사역인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 사역을 소개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사역과 흡사하다. ‘베프’ 사역은 ‘함



박기준 목사, 이혜란 사모와 함께 동행한 새가족 팀원들이 실제 사역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박기준 목사와 이혜란 사모.

담임목사가 전도특공대 직접 인솔...관계전도, 베프사역 새가족 정착율 90%...부교역자 1명뿐 평신도리더 양육

서원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에서 평생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나 교회 상황이 어렵다 고 물려설 수 없었다. 이 교회에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만 했다고 회고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천번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매일 365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과 밤으로 성경을 통독하며 주님께 매달렸다고 한다. 이혜란 사모는 “부임 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도 90여명에 빛도 많았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이 교회의 본질이라

임목사가 나서야 합니다. 부교역자들을 시키면 안 되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담임목사가 일으켜 세워야 하거든요”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 대원들은 튼튼하게 훈련되어 전도에 올인했고 결국 ‘전도하는 교회, 새가족 정착율 90%의 교회’로 탈바꿈 하게 됐다. ‘전도와 새가족 세미나’ 오전 강의에서 박기준 목사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도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우리도 흔히들 사용하는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

서 만나고 교회 밖에서 관계를 이어가다 어느 계기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세미나 오후시간에는 이혜란 사모가 단에 올랐다. 이혜란 사모는 새가족 사역을 설명했다. 그는 ‘새가족 정착의 시작은 교회의 토양’이라고 강조하며 다섯 가지의 토양요소를 제시했다. “교회는 전도중심의 교회가 돼야 하고 기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새가족을 맞을 준비가 돼야 한다. 또한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새 가족을 위한 배려와 섬김,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새가족이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양육’이라고 한다. 이 교회는 새가족 양

계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새가족 신앙 교실 양육과정과 함께 목자교회 새가족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베프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 부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새 가족을 돌보는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나 아쉬운 건 양육 중심(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새 가족은 부담스러워 함)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베프 사역은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가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목자교회는 2002년 3월부터 시작된 3차례의 일천번제 기도회를 통해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고 두 번의 성전건축을 이뤘다. 현재 교회당은 대구광역시 서변동에 1250평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세워져 대구 땅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이루고 있으며 12개의 교회 개척과 1000개의 셀과 1000명의 셀 리더를 세울 것을 꿈꾸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대경노회) 소속인 목자교회는 독특한 부분도 많았다. 출석교인 700여명이 넘는 교회지만 부교역자는 부목사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이들은 모두가 평신도 리더들이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동행한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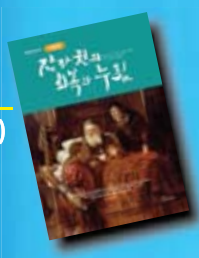
가족 팀원도 모두가 평신도로 목자교회 전도팀의 전도를 받아 성도가 되고 훈련돼 새가족 팀원이 됐다. 이들은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자신들이 맡은 사역 소개와 함께 간증을 나누며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해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박기준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회 우리교회 전도팀 세우기 프로젝트 강사, (사)처치파트너스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가족으로 이혜란 사모(미술심리상담사 1급, 부모교육코칭 1급, 스피치 지도사, 이미지 메이킹 강사)와 찬미와 찬주 1남 1녀를 두고 있다. 목자교회는 www.mokja1000.com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낮은 자존감으로 30년 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 목사가 35년 목회사역에 걸쳐 일구어낸 **“말씀과 기도훈련 세미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갈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회복해 줍니다.



김영환 목사
(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저자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목회자 세미나

일시: 2018. 11월 19(월)~20(화)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체플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목사)

강의시간: 19(월) 9am~12am, 2~4pm, 7~9pm
20(화) 9am~12am, 2~4pm
대 상: 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록비: \$50 (교재, 식사포함)
미자립교회 목회자 \$30
문 의: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 (송종호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